

춤추는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

“젊게” “밝게” “새롭게” 출발하여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누구나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춤추는 박물관” 이 되겠습니다.

전 주 역 사 박 물 관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1

전화 063. 228. 6485~6 | 팩스 228. 6484

마침내 펼쳐지는 역사 문화의 고향!

‘전주역사박물관’은 지난 100년을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형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아우를 수 있는 역사의 통찰력을 길러주는 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앞서 고민했던 선배들의 감동어린 이야기와 이 시대를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따뜻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작은 소리도 주의깊게 듣는 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징검다리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역사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

차 례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의 역사적 위치 이이화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과제 이동희

항일투쟁 속에 성장한 전주 임혜영

東學農民軍의 전주성 점령과 역사적 의의 배항섭

동학농민군의 전주 대도소 설치와 집강소체제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의 역사적 위치

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역사문제연구소 전소장)

1) 전주의 역사적 위치

전주는 한국 역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그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 연혁을 간단히 알아보자.

555년(백제 위덕왕 2)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한 뒤에 10여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685년(신라 신문왕 5) 다시 완산주가 부활되어 남쪽의 무진주와 함께 호남지방 행정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 뒤 757년 전주로 바뀌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후기 신라는 이 곳에 완산정(完山亭)을 두어 북쪽의 한산정(漢山亭)과 함께 2대 군사 요지로 삼았다. 892년 진훤은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38년 동안 이곳을 도읍지로 삼았다. 고려 시기에는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기도 하고 반역사건으로 강동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주에 계수관(界首官)을 두어 이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 삼았고 1388년에는 전주성을 쌓았다. 고려 시기에는 지방 행정의 수부이면서, 개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기에는 이씨 왕조 조상의 터전이라 하여 풍패지향(豐沛之鄉)이라 부르고 경기전을 설치하여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하고 제향을 드렸다. 또 1403년 전주부를 두고 부윤을 관찰사가 겸임하였다. 더욱이 1439년 경기전 경내에 실록 사고를 두고 실록을 보관하였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임진왜란 때 보존되어 이를 저본으로 오늘날 완벽한 실록을 복원케 하였다.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의 수부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1738년 전라도를 좌도 우도로 구획하였으나 그 수부의 위치는 변함이 없었다. 1767년 전주성의 남문 서문을 중건하여 '풍패'(豐沛)의 두 글자를 따서 풍남문 패서문이라는 현판을 내걸었다. 그리하여 풍남문은 명실상부한 호남제일성의 위엄을 자랑하였다. 이어 1771년에는 조정묘와 조정단을 만들어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의 위패를 봉안하였고 이어 임금 자리를 상징하는 공북문(拱北門)을 세웠다. 1896년 행정구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에 전라 좌우도를 남북도로 갈라 전주는 북도의 수부가 되었고 1914년 부로 지정되었다.

2) 생산 중심기지의 관찰사부

호남지방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중심지이다. 만경강 평야와 영산강 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쌀과 무명이 생산되었다. 쌀은 적어도 신석기 후기부터 재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서남 지역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양활동이 활발하고 높은 어업소득을 올렸다. 따라서 육로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고 남해 서해를 중심으로 조운(漕運)도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러시아 대장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지역으로 따져 호남지방이 운수 수단과 상업이 가장 발달하였다고 기록하였다.(한국지)

우리 나라는 국가 생산량에 비추어 전통적으로 하삼도를 가장 중시하였다. 하삼도는 국가의 중추로 보았던 것이다. 우선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을 대비해 보자. 그 보기를 1634년(인조 12)의 사례를 제시한다.

전라도	밭 171,747결	합계 335,580결
	논 164,833결	
경상도	밭 175,775결	합계 301,819결
	논 126,044결	
충청도	밭 159,465결	합계 258,460결
	논 98,995결	*증보문헌비고 전부고

물론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위 통계는 논밭을 합해 전라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논외의 경우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생산율이 높은 무논이나 비옥도로 따지면 그 질적인 비중은 더욱 달라질 것이다. 쌀이 국가 재정의 중심이 되었으니 호남지방에서 바치는 전세가 국가 재정의 30퍼센트 또는 40퍼센트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대동법이 실시되어 공물(어업세 염세)을 쌀로 환산해서 바칠 때에 충청도가 11,600섬, 경상도가 27,400섬이었으나 전라도는 42,900섬이었다.

3) 호남지방의 차별과 수탈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개미떼가 꼬여들기 마련이다. 조선 초기부터 서울의 벼슬아치들은 호남지방의 수령이 되기를 열망하였다. 이곳의 수령으로 나가 3년만 채우면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장만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노래로까지 지어 불렀다 한다.(성호사설) 더욱이 감사 자리로는 전라감사와 평안감사가 인기가 높았다 한다. 평양감사는 기생을 끼고 노는 재미, 전라감사는 재산 모으는 재미 때문이라 한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를 남겨 이 지방 사람의 등용을 억제하였다고 하나 역사적 실체가 확실치 않다. 1592년 정여립사건이 유발된 뒤에 차별이 가해졌고 서인 노론의 집권시기 계속 이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더욱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광주 사람들은 곡식 1천여섬을 모아 서울로 보내면서 이 고장 사람을 수령으로 보내달라고 청원까지 하였다. 수령의 부정을 덜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 수탈의 정도와 정상을 <목민심서> 등 정약용의 저술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리하여 1862년이 봉기한 삼남농민봉기는 처음 경상도 일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전라도로 번져 그 열도를 더하였다. 19세기 민비는 벼슬을 마구잡이로 팔아먹으면서 전라도 감사와 수령 자리는 더 높은 값을 받아냈다. 동학농민혁명 직전에 전라도 감사로 부임한 김문현이 그 부정 관리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개항이후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였다. 일본은 경공업 제품을 조선에 수출하면서 농산물을 수입해갔다. 곧 미면(米綿) 교환무역을 추진하면서 기계로 짠 영국제 옥양목과 자국산 광목 따위를 조선에 팔아먹으면서 쌀과 콩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영국제 옥양목은 결이 곱고 질기지 않아 사치품으로 여겨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일본제 광목은 질이 질기고 조선 무명과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광목은 거의 조선의 쌀 콩과 교환하여 가져갔기 때문에 호남지방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

19세기 후기 무렵 일본에서는 인구가 늘고 산업인력의 확대로 식량의 공급이 딸렸다. 일본에서는 불령 인도(베트남), 영령 인도(태국), 그리고 조선에서 쌀을 수입하였으나 조선쌀이 일본쌀과 질이 비슷하고 찧기가 저서 주로 조선 쌀을 광목과 화장품 따위로 맞바꾸어 가서 판신 공업지대 노동자들에게 공급하였고 군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농민이 생산한 쌀은 포구의 객주 손으로 넘어가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그 중간에 수령과 구실아치들이 결탁하여 전세 납부분까지 팔아 먹었다. 일본인들은 안정적으로 쌀을 확보하고 값을 후려치기 위해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방법까지 썼다.

그런 까닭으로 전국적으로 쌀값이 폭등하였는데 전라도 농민들은 기근을 견디다 못해 도시 유리민으로 전락하거나 간도로 이민을 갔다. 이런 현상은 동학농민전쟁을 앞뒤로 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의 10년간은 그 앞 시기보다 조선 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이 3배 이상 늘어났다. 그 중심지는 전주였다. 전주의 이서들과 전라도 지방 객주들은 치부를 하였으나 중소 농민들은 더욱 소작농민으로 전락하였다.

4) 동학농민전쟁과 전주의 위치

전주 주변에서 벌어진 1892년의 삼례집회와 1893년의 원평집회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무렵 김문현이 전라감사로 부임하면서 고종에게서 특별 지시를 받았다. 두 집회를 앞뒤로 하여 민중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이에 대한 군사대비책으로 강화진무영을 개편하여 기연도총제영(畿沿都摠制營)을 남양에 두고 경기도 연안 수비를 강화하였다. 서울 방비의 요충로인 수원 용인 안성 광주에 강화도와 평양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특히 전라도 지방에는 특수부대를 창설하였다.

고종은 처음 전라도에 3천명 규모의 군제를 창설하려 하였으나 재원 무기 등을 확보할 수 없어 그 규모를 축소하였다. 정규 군사 3백명과 잡역 등을 합해 7백명 정원의 군부대를 전주에 창설하고 무남영(武南營)이라 명명하였다. 무남영은 평양에 둔 서남영과 함께 지방에 둔 특수부대였다. 그 경비는 전라도 53개군에 기존의 결세에 백분의 1을 더 내게 하여 염출하였고 그도 모자라 지세(紙稅) 죽세(竹稅) 해구세(海口稅) 등 잡세로 보충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의 초기 단계에 이들 군사들이 출동하였으나 황토재에서 패배한 뒤에 군사들이 거의 흩어져 이름만 남은 군영이 되었다.

전봉준은 전주 감영의 정석희 등과 끈을 달아 정보를 빼내고 영장 김시풍과도 연계를 모색하였다 한다. 초기 단계에 농민군은 백산에서 곧바로 전주로 진출키 위해 화호로 내달아 태인현을 들이치고 원평으로 나가 진을 쳤다. 하지만 무남영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산으로 후퇴하여 황토재에서 전투를 치렀던 것이다. 이로 보면 농민군은 처음부터 전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려 하였다. 전주성 점령이 일차 목표였고 전략적으로도 중요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군이 남쪽으로 일단 후퇴하면서 역량을 결집하고 다시 북상하여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군이 조선 건국 이래 최초의 감영을 장악한 사례에 해당한다. 건국 초기 이징옥 이시애가 함경도 일대에서 봉기하여 감영이 있는 함흥일대를 석권하였으나 완전한 점령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또 이들은 농민군이 아니었다. 흥경래 주도의 관서농민전쟁 때에도 감영이 있는 평양이나 해주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지역방어를 위한 특수부대 무남영이 있던 곳이며 전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방의 수부였다. 전봉준

등 지도부가 비록 토벌군인 장위영을 이끌고 있는 홍계훈과 일단 화해 약속을 하였다. 이 대목에서 덧붙일 말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타난 전주화약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개 현지 토벌군 사령관과 전제군주국가의 통치 골간인 신분제도와 토지제도를 전면 타파할 화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농민군의 요구를 고종이나 의정부에 보고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장위영군이 물러난 뒤 전주성은 실질적으로 농민군 수중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 부임한 감사 김학진은 낭중(囊中)의 노리개잡이였기 때문이다.

이로 하여 다른 지역 농민군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경상 우도에서는 진주병영의 점령, 강원도 동부에서는 강릉부의 점령, 황해도에서는 해주 감영의 점령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주요 지역은 거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5) 집강소의 요람 전주

전봉준은 김학진과 담판 끝에 수성의 이무를 맡기로 다짐하고 전라도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이때 김학진의 이름으로 전라도 53개 군현에 공문을 보내 농민군은 무기를 반납하고 수령은 동학도의 금압을 일체 중지하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집강에게 알려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허울이었다. 집강소 활동을 통해 농민군들은 반상의 타파, 노비의 해방, 불법적 조세의 시정, 군기를 거두어 자체 무장력을 키웠다. 더욱이 고을 단위로 집강을 두어 군주가 임명하여 군주통치권을 대행한 수령을 내쫓거나 협조하는 처지로 전락시켰다. 다시 말해 점령지 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흔히 집강소 활동을 농민자치라고 하나 농민통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민자치는 중앙의 지방정책에 따라 농민이 참여하는 수준인데 집강소 활동은 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전통적 유향소나 향회가 이 범주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집강소 설치지역은 농민군의 해방구였다. 그들은 봉건모순의 척결 이외, 국가 조세를 거두어 자체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부정 관리를 징치하였으며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농민 통치로서의 그 의미가 부여될 때 자생적 민주주의의 맹아라는 평가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전라도 집강소는 다른 지역의 집강소와는 달리 군현 단위로 설치되었다. 물론 전봉준 계열과 김개남 계열과 나누어져 그 명령계통이 일원화되지 못하였으나 반봉건이라는 그 지향을 같았다. 또 나주 남원 여수 등 일부 지역에는 집강소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집강소 본부를 굳이 거론할 경우, 당연히 전주 집강소를 들어야 할 것이다. 전봉준은 여러 집강소를 돌아보고 그 방향을 지시한 뒤 다시 전주로 와서 집강소 일을 보았다. 따라서 전주 집강소는 지휘 본부였던 셈이다. 그리고 2차 봉기 때 집강소를 통해 군사와 무기를 모았던 것이다.

따라서 전주를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지만이 아니라 집강소라는 이름의 농민통치 그리고 한국의 자생적 민주주의의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태평천국 활동의 중심지였던 남경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 곳에는 여러 역사적 평가작업을 벌여 놓았다. 남경에 있는 태평천국군의 기념관을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전주는 봉건모순을 척결하여 근대사회를 연 요람지요 민족모순이 전개될 때 항일 민족항쟁의 시발지가 되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하나의 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과제

이동희(예원대 교양학부 교수)

1. 머리말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완산(完山)이었으며,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 한자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주로 개칭되었다.

온고을 전주(全州)는 지명에 걸맞게 물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노령산맥에서 뚫어내린 기린봉, 승암산, 고덕산, 모악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사람 살기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다만 서북쪽이 열려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이를 비보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덕진제방, 숲정이, 진북사(鎭北寺) 등이 그것이다. 건지산(乾止山)이라는 명칭도 그렇다. 북서쪽이 건방(乾方)에 속하므로, 서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기 위해 건지산이라 한 것이다. 1541년(중종 20) 전주사람 50여명이 연명으로 올린 소에, "(전주부의)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은 허하여 바닥기운이 분산하기 때문에, 진산 이름을 건지산이라 하고, 제방을 쌓아 이름을 덕진(德津)이라 하였으며, 절을 창건하여 건흥사(建興寺)라 하고, 서쪽에 있는 조그만 산을 가련산(可連山)이라 했습니다"라 한 것은 그런 비보 풍수를 말해준다.¹⁾

그런데 전주 주산과 관련해 이런 설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의 지리서들에는 진산이 건지산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기린봉이 주산이라는 것이다. 기린봉이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주산으로서 품격을 갖추고 있으며, 건지산은 주산으로서는 너무 약한데 기린봉에 왕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 기를 누르기 위해 조선왕조는 일부러 주산을 건지산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최창조도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전주에 왕기가 흐른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의 왕도로 자리하였고, 이후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시련도 적지 않았다.

마한 백제시대 전라도의 중심은 전주가 아니라 익산이었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쫓겨 이주한 곳도 익산이고, 백제 무왕이 별도를 설치하고 중흥을 꿈꾼 곳도 익산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멸망후 고구려 왕족으로 유민과 함께 강제 이주된 안승의 보덕국이 자리한 곳 또한 익산이다.

전주가 전라도의 수부(首部)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에 들어와서이다. 신라는 백제 병합후, 신문왕 5년(685) 완산에 주를 설치하여, 현 전북권의 중심지를 익산에서 전주로 이동시켰다. 즉 신라는 통일 직후 지방을 9주 5소경제로 편제해, 확대된 영토를 다스렸는데, 이 때 9주에 익산이 빠지고 전주가 들어가고, 전남권에서는 광주가 들어갔으며, 남원이 5소경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이처럼 중심지를 익산에서 전주로 이동시킨 것은, 익산 금마에 자리했던 보덕국이 난리를 일으키자 이를 약화시키려는 의지가 작용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 백제인들의 구심점 이동을 통해 백제세력의 와해 내지 약화를 도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 김두규, 2000, 「전주의 산세와 풍수지리」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북전통문화연구소, pp. 32~33.

이와 함께 전주의 성장배경으로 지리적 영역확장을 통한 중심지로서의 공간확보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전주천이 현재는 도심을 우회해 흐르고 있지만, 원래는 오목대 아래로 해서 도심을 관통하여 흘렀다. 지금도 건축공사 중 땅속에서 모래자갈 등 원래 하천이었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 오목대 서남변의 넓은 함도(陷道)는 배를 매고 성안으로 올라왔던 자국이라 한다. 후백제 건훤이 현재의 전주소심지를 비켜 승암산 자락에 도성을 쌓고, 전주의 옛도시가 이 산자락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형성된 것도, 결국은 물길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전주천이 도심지를 비켜 우회하기 시작하고, 홍수로 인한 전주천의 범람을 수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주는 넓은 평지를 확보, 전라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부(首府)

전라도는 농경시대 제일의 곡창지대로 어느 지역보다 풍요를 구가하였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이 “호남은 우리나라 남쪽의 울타리로 산천의 경계가 뛰어나고 물산이 풍요로워 온 나라가 먹고 입는 자원의 절반을 호남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전라도의 경제적 위치를 잘 대변해 준다.

예컨대,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등재된 순조 7년의 토지현황을 보면, 전라도가 총 340,103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답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이 경상도 337,128결, 충청도 256,528결이다. 당시 전국의 전체 전답이 1,456,592결이었으니, 전라도가 전국 전답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체 전답 중에서 세금을 내는 전답(실결)만 따져 보아도 전라도가 204,760결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도 201,553, 충청도 120,833결이다.

전라도의 전체 면적이 경상도의 4/3정도로(면적추정치 : 경상도 30434km², 전라도 21803km², 충청도 15099km²), 그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답이 많다는 것은 전라도지방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인구수를 보면, 순조 16년(1816)의 경우 경상도가 1,427,6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라도로 1,048,791명, 그 다음이 충청도로 860,510명이다. 물론 이 수가 정확한 인구수는 아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비교선상에서 볼 때, 전라도가 경상도에 비해 인구가 훨씬 적었는데도 토지가 더 넓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의 경제가 하삼도 즉 전라도·경상도·충청도에 의존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전라도가 가장 나은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주는 이런 전라도의 감영이 있던 호남 제일성이었다. 그러기에 전주를 평하기를, 물산이 서울을 방불케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전통기 서울 대구와 함께 전주가 3대도시였음도 그런 차원이다.

이러한 이 지역의 경제적 풍요는 전주·전라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3. 전통과 예술의 千年古都

1) 후백제 건국의 왕도

신라하대 정치적 혼돈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자 각지에 독자적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서해안을 지키는 비장으로 있던 견훤 또한 병졸을 거느리고, 892년 무진주(광주)를 공략하여 세력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견훤은 900년 마침내 거점을 전주로 옮겨, 국호를 후백제라 하고, 왕을 칭하였으며, 전주 승암산 자락에 왕성을 구축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의 상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주민들이 맞이하여 환영하였다. 견훤이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삼국의 기원을 상고해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 변한이 따라 일어났다. 이에 백제는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00여년이 지났는데 총장(摠章) 연간에 당고종(唐高宗)이 신라의 청원을 받아들여 장군 소정방을 보내 선병(船兵) 13만으로 바다를 건너게하고, 신라의 김유신도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기까지 휩쓸어 당군과 합세, 백제를 공멸하였다. 지금 내가 도움을 완산에 정하고 어찌 감히 의자왕의 숙분을 씻지 아니하라”하고 드디어 후백제왕이라 자칭하고 관부를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니 이것이 당 광화 3년이요, 신라 효공왕 4년이였다. (『삼국사기』, 열전 10, 견훤조)

그가 전주로 정도하게 된 데에는, 영토의 확장의 포석, 나주세력의 이반에 따른 후방의 정세 불안, 공주 광주에 비해 전주에 배치된 신라의 정규 군사력이 2배정도 되는 등 군사력 확보 용이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반신라감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

도성은 승암산 기린봉자락에서 그 자락이 끝나는 현 전주교교 근처의 물왕벌(水王村)에 이르는 공간에 구축되었고, 왕궁은 물왕벌에 축조되었거나, 또는 승암산 정상부근, 성황사 위에 자리했다는 주장 등이 있다. 승암산의 왕궁터라고 추정되는 곳의, 발굴을 통해 「전주성」 명문의 암막새 숫막새 등이 나왔으며, 특히 암막새는 전주성 명문 양측에 한쌍의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고, 또 하나의 암막새는 명문 양측에 창을 들고 겨루는 한쌍의 무사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어 예사롭지 않다. 「官」자가 새겨진 기와도 출토되었다.³⁾

그러나 견훤의 후백제는 935년 신검과 금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세력들의 갈등 끝에 신검의 쿠데타가 발발,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나주로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하였으며, 936년 후백제도 최후를 맞았다.

후백제의 역사는 전주를 천년고도라는 도시전통을 마련해 주기도하였지만, 역사의 승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기도 하였다. 훈요십조가 등장한 고려시대도 그랬지만, 조선시대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성종과 이맹현 이극기 등이 경연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다.

성종대 석강에서 이맹현이 “전라도는 인심이 각박하고 악하여 도둑이 무리져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능멸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종이 “전라도는 옛

2) 김주성, 2000, 「전주의 산세와 풍수지리」 『전주의 역사와 문화』, pp.50~55.

3) 전영래, 2001, 「후백제와 전주」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pp.34~39.

백제 땅인데, 백성들이 견훤이 남긴 풍습을 이제껏 모두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풍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극기는 또 “견훤 이후로 고려 500년을 지내고 조선조가 되어서도 거의 100년이 되었으나, 남은 풍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완악하니, 명심하고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성종과 이맹헌 이극기 등의 이야기는, 전라도 인심이 각박한데 견훤의 악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성종대 장령 김미가 “전라 1도는 옛 백제 터니, 그 유풍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완악한 풍속이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라고 한데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후백제의 역사는 전통기 전주를 비롯한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한 축이 되었다.

2) 조선왕조의 발상지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의 풍패지향(豊沛之鄉)이다. 그 시조는 통일신라 문성왕(재위 839~857) 때에 사공(司空) 벼슬을 지낸 이한(李翰)이며, 그 부인 경주김씨는 태종 무열왕의 11대손으로 군윤(軍尹, 향직)을 역임한 김은의(金殷義)의 딸이다. 태조 이성계는 시조 이한의 21대손이 된다.

전주세거시 그 선대들의 가계형편이 어떠했는지 분명치 않지만, 태조의 6대조 이린(李璘)이라는 인물이 주목된다. 환조신도비(桓祖神道碑)에 이린이 시중 문극겸(侍中文克謙)의 사위로 나와 있는데, 『고려사』 의의방 열전에 이린은 의의방의 동생이며, 문극겸의 사위로 나온다. 이렇게 볼 때 환조신도비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린은 1170년 정중부, 이고 등과 함께 무신난의 주역인 의의방의 동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태조의 선대는 전주지방의 토호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성계 집안이 전주를 떠난 것은 그의 고조부인 목조 이안사(穆祖 李安社) 때이다. 이안사는 지전주사(知全州事)가 자신이 가까이 했던 관기에게 산성별감(山城別監)의 숙청을 들게 하자 관기를 몰래 빼돌렸으며, 이에 지전주사와 산성별감이 이안사를 처벌하려 하자 그의 외향인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삼척에 새로 부임한 안렴사(按廉使)가 공교롭게도 전주에서 마찰을 빚었던 그 산성별감이었으며, 이에 이안사는 바닷길을 통해 동북면 의주(宜州, 德源)으로 거처를 다시 옮겼다.

이 시기는 몽고에 저항하던 시기로, 아마도 이안사가 전주의 토호로 반독립적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방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된다. 삼척으로 떠날 때 170여호가 따랐다는 사실은 그가 전주의 토호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⁴⁾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그가 동북면으로 가는 유이민의 하나였다고 보는 설도 있다.⁵⁾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전주이씨임을 부정하는 설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지금도 태조와 전주의 관계를 의문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태조의 본향은 전주가 아니며, 목조 이안사가 전주가 아니라 의주로부터 삼척으로 이주한 것인데, 조선건국후 태조의 가보를 날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조선왕실을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으로⁶⁾ 사실이 아니다. 조선왕실의 세계가 부풀려지고 가려진 부분은 있겠지만, 본향

4) 許興植, 「고려말 이성계(1335~1408) 세력기반」 『고병익회갑기념사학논총 역사와 인간의 대응』, 1984, 104~105쪽.

5) 柳昌圭,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 -동북면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58, 1984, 2쪽.

6) 池内宏, 1915, 「李朝の四祖の傳説と其の構成」 『東洋學報』 5.

이 왜곡된 것은 아니다.⁷⁾

조선은 건국직후 태조어진을 모신 경기전을 설치하는 등 전주가 왕실의 본향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전주문화유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기전,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객사, 풍남문, 전주사고 등도 풍패지향과 관련되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건립된 것들이다.

그런데 경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조형물들은 조선후기에 건립되었다. 풍남문이라는 편액과 조경묘 조성이 영조대에 이루어졌으며, 객사를 풍패지관이라 명명한 것도 이 때쯤의 일로 추정된다. 또한 오목대 이목대 조경단 등은 조선말 고종대에 건립되었다. 이는 조선말로 가면서 풍패지향 전주에 대한 조선왕실의 관심이 증폭되었음을 말해준다.

영조대는 당쟁의 폐단에서 벗어나 조선왕조를 새롭게 중흥시키려 했던 시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벌중시 풍조가 고조되고 있던 시대이다. 고종대는 조선왕조의 국기조차 흔들리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왕실의 본향을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곧 조선왕조가 재도약을 꿈꾸면서 왕실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려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전주가 풍패지향임을 강조하여 전주인들을 위무하고, 나아가 조선왕조에 대한 전주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선왕조의 노력은 전주가 왕실의 본향이라는 지역민들의 견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전주가 조선왕실의 풍패지향이라는 인식은 전주인들의 큰 자긍심으로 자리하였으며, 이는 임진왜란시 전주성을 수호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내는 등 충절의 동력이 되었다.

3) 맛과 멋의 예향

전주하면 예향(藝鄕), 예도(藝都)라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점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본다. 물론 전주만이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예향을 칭함으로서, 그 차별성내지 고유성이 애매해졌지만, 그렇다해도 전주가 맛과 멋의 예향임은 분명하다.

전주를 이처럼 전통예술의 도시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리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전주를 “소리의 고장”, “소리의 발상지”, ‘귀명창의 동네’라고들 한다. 그만큼 전주와 소리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판소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춘향전』이 이 지방 남원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흥부전』도 그 무대가 남원이다. 『심청전』도 전라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판소리의 사설 또한 전라도 방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판소리를 발전시킨 장본인들도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전라북도만 해도, 권삼득·송홍록·모홍갑·주덕기·신만엽·송광록·박유전·김세종·박만순·장자백·김창록·김찬엽·전도성·정정렬·유공렬·장판개·김정문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다. 전북은 판소리의 산실이었으며, 그 중심지가 전주였다.

전주 통인(通人)들의 축제였던 전주대사습놀이는 그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전주대사습사(全州大私習史)』(1975)에 실려있는 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판소리의 고장인 전주에서는 명절이나 잔치 등에서 판소리를 듣고 즐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동짓날 팔죽과 음식을 먹고 광대를 불러 통인청에서 판소리를 하고 놀았던 것이 전통이 되어 대사습이 되었다고 한다. 통인은 관청에 딸려 심부름을 하는 노비인데, 대체로 10여세

7) 이에 대해서는 이동희, 2000,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전주정신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pp.9~14.

부터 30여세까지 재직하였다고 한다. 통인에도 여러 종류와 급수가 있어서, 선배 통인의 심부름이나 하는 통인으로부터 관찰사나 부사의 비서와 비슷한 일을 맡아하던 통인까지 다양하였다고 한다. 전주에는 관찰사가 근무하는 영문이 있고, 전주부윤이 근무하는 본부가 있었다. 영문에 근무하는 통인을 영문통인이라고 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통인을 본부통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동짓날에 통인 총회겸 친목회를 하는데, 이때의 여흥을 위하여 판소리 광대들을 초청하여 판소리를 듣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전주 통인들의 판소리 감식력이 높아서 여기에 출연하는 소리꾼들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이들은 통인들을 통해 양반들에게 소개되고, 중앙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자연히 판소리의 등용문이 되었다...

이런 대사습이 판소리 등용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하나의 제도로 확립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이 아닐까 추정되며, 19세기말경에는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통은 1975년에 복원되어 계속되고 있다.⁸⁾

한편 전주는 한지와 부채의 고장이고, 출판문화의 메카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한지가 여기에서 생산되었고, 양질의 종이와 대나무의 산지를 끼고 태극선 합죽선 등 특산품이 일찍부터 발전하였다.

또한 수많은 고소설과 서적들이 전주에서 간행되었다. 전라감영에서 책을 찍던 목판은 현재도 향교 장판각에 보관되어 있다. 최초의 한글 고대소설인 '별월봉기'를 비롯 춘향전 등 20여종, 이본들을 합하면 5-60여종의 소설이 전주에서 발간되었다. 당시 서울과 경기 안성에서도 발간되었는데, 지방에서는 전주가 유일한 고소설 발간지였다.

전주판본인 완판본은 서울의 경판보다 앞선 시기인 1823년에 이미 간행되기 시작했으며, 1937년까지 110년간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또한 완판본 고소설을 서울과 다른 지방에 판매망을 두고 판매를 하였다는 것도 특별하다. 이를 방각본(坊刻本) 소설이라 하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전주의 출판문화가 대단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주에서 이렇게 고소설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전주의 경제력과 함께 고소설이 판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⁹⁾

그런가하면, 음식하면 또 전라북도이다. 넓은 바다와 강과 들이 어우러진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여 옛부터 맛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곧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다. 한정식도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다.¹⁰⁾ 전주 팔미는 파라시, 열무, 녹두묵, 서초, 애호박, 모자, 게, 무를 말하며, 여기에 콩나물과 미나리를 더하면 전주 10미가 된다. 결국 음식 또한 풍부한 경제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8) 최동현, 2001, 「조선조 후기 전주와 소리」 『전주, 과연 예향인가』(예향재조명학술대회), 전주문화원·전북대전라문화연구원, pp.78~80.

9) 이태영, 2000, 「개화기시대의 출판문화를 통해서 본 전주시민의 정신」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전주정신 학술심포지움 발표문); pp.41~44.

10) 주종재, 2000,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 『전주의 역사와 문화』, p.320.

4. 충절과 변혁의 땅

1) 왜란과 전주성 수호¹¹⁾

충무공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也)'고 하였으며, 조선중기의 사림 안방준은 '호남의 보존은 의병의 봉기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 말들은 임진왜란에서 호남의 중요성과, 호남인의 활발했던 의병활동을 잘 대변하여 준다.

일본은 선조 25년(1592) 약 16만 명의 병력을 9군으로 편성하여 조선을 침공하였다. 4월 14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제1진이 부산포에 상륙하였으며, 이를 맞아 부산 첨사 정발(鄭撥)과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전라도 고부출신)이 죽음으로 분전하였으나 왜군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이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2진이 부산에 도착하였고,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3진이 김해에 상륙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왜군은 일본 사신들의 상경로였던 3개 루트를 따라 파죽지세로 북상하였으며, 조선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하여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지 20여일만인 5월 3일 서울에 입성하였으며, 6월 15일 평양을 점령하였다.

전라도 공략을 맡은 고바야카와는 그 별군 안고구치 에케이(安國寺惠瓊)로 하여금 창원에서 남원을 거쳐 전주를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곽재우(郭再祐)가 이끄는 의병군에 의해 진로를 저지당하자 방향을 달리하였다. 그리하여 무주를 거쳐 금산을 점령한 왜군은 두 길로 나뉘어 전주를 공략하려 하였다. 한 부대는 용담과 진안을 친 다음 웅치(熊峙)를 넘어 전주로 들어가려 했고, 한부대는 진산을 친 후 이치(梨峙)를 거쳐 전주로 진격하려 하였다.

이에 김제군수 정담(鄭湛), 나주판관 이복남(李福男), 함열출신 의병장 황박(黃璞) 등이 전주와 진안의 경계인 웅치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7월 7일 고바야카와 부대의 별군인 안고구치 부대가 웅치를 공략하였으며, 이를 맞아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물러났던 왜군은 다음날 대군을 몰아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고개 아래의 제1선 황박의 부대에 이어 중턱의 제2선 이복남의 진지가 무너졌으며, 고개 맨 위의 제3선 정담의 진지까지 밀린 조선군은 결국 안덕원(安德院)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후퇴를 마다하고 결사항전했던 김제군수 정담과 그의 종사관 이봉(李葑), 비장 강운(姜運)과 박형길(朴亨吉), 고부출신 의병장 김제민(金齊閔)의 아들 김안(金晏) 등이 순절하였으며, 해남현감 변응정(邊應井)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왜군은 이들의 의로운 죽음에 감복하여, 조선인의 시체를 모두 모아 노변에 큰 무덤을 만들어 장사지내고, 그 위에 「조선국의 충의로운 용사들에게 조의를 표한다(弔朝鮮國 忠肝義膽)」라고 쓴 표목을 세워 주었다.

웅치싸움에서 비록 패배하였지만, 이틀간에 걸친 혈전으로 왜군의 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전라도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전투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한편 웅치에서 후퇴했던 이복남은 안덕원에 진을 쳤으며, 웅치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북현감 황진(黃進, 전라도 고부출신)도 안덕원 뒷산에 진을 치고 왜군을 무찔렀다. 웅치를 가까스로 돌파한 왜군은 안덕원에서 이복남과 황진의 반격을 받아 전력에 또 한차례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안코쿠지의 군대는 7월 10일 전주성 동문밖까지 이르러 성황산(지금의 기린

11) 이동희, 1999, 「나라와 역사를 지킨 우국충절」 「전북의 역사와 문화」, pp.185~191.

봉?)으로도 올라가 전주성을 넘보았다. 현재 아중 저수지 너머에 왜막실(왜망실)로 불리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응치를 넘어온 왜군과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전라감사 이광(李洸)은 남고산성에 진을 치고 있다 왜군이 동문밖까지 이르렀다는 소리를 듣고 금구로 도망하였으며, 의병장 이정란(李廷鸞)이 군사를 모아, 위장전술을 구사하는 등의 전략으로 전주성을 지켰다. 이정란은 의병을 성밖에 만들어 놓고, 낮에는 깃발을 많이 세워놓고, 밤에는 온 산에 횃불을 올리게 하면서 기병으로 출몰하여 전주부성내에 병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꾸며 왜군을 속였다. 그러자 왜군은 성밑에 와서 살피다가 공격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¹²⁾

이치는 진산(珍山)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전주 동북쪽 대둔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왜군의 전라도 침공을 대비해, 도절제사 권율(權慄)은 1천 5백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치에 진을 쳤으며, 안덕원에서 왜군을 공략하고 이치에 도착한 황진은 최전방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싸움에서 황진은 그 휘하의 공서역·위대기 및 의병장 황박과 함께 제일선에서 고바야카와 부대를 맞아 대접전을 벌였다. 진두지휘하던 황진이 적의 조총에 맞아 중상을 입자 사기가 오른 왜군은 대공세를 펼쳤으나 공서역 등이 필사적으로 이를 방어하였다. 이치전투는 왜군측에서 임진왜란 3대전의 하나로 꼽았을 만큼 치열한 혈전이였다. 이 싸움에서 조선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왜군은 시체가 수리에 걸쳐 널려 있을 정도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의를 상실한채 금산으로 후퇴하였다.

이렇게 응치와 이치싸움으로 전라도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고, 전주성을 수호함으로써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이렇게됨으로써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주는 왜란의 병화속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 낸 곳이기도 하다. 경기전 참봉 오희길, 태인지방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주사고에 보관하였던 『조선왕조실록』만이 병화를 피해 유일하게 보존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의 방대한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록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2) 훈요십조와 정여립사건

훈요십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이 죽기 직전 943(태조 26)년 4월 박술회를 불러 자손들을 경계하고 깨우치기 위해 내렸다는 것으로 모두 10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 중 호남차대를 불러온 조목은 제 8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령 이남과 공주 금강 이외의 지역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배역하는 형세이며 인심 또한 그러하다. 그 아래 고을의 인물들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척족들과 혼인하여 국정을 쥐게 되면 국가를 변란 속에 빠지게 하거나, 고려에 통합된 원한을 품고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찍이 관청의 노비나, 역이나 나무 등에서 천역에 몸을 담던 무리들도 혹은 권세가에 붙어 역을 면하고, 신분을 바꿔 왕실이나 궁궐에 붙어살며 말을 간교하게 하여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어지럽혀 재난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벼슬자리에 두어 일을 보게 하지 말라(『고려사』 세가 2, 태조 26년 4월 조)

12) 홍성덕, 2000, 「임진정유왜란과 전주」 『전주의 역사와 문화』, p.216.

내용인즉 차령이남 지역은 풍수지리상 반역의 형세니 그 출신인물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라도가 배역의 형세라는 이 같은 풍수논리는 후백제 멸망후 전주·전라도가 견훤의 땅이었다는 것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기본 논리구조로 작용하였다. 견훤과 왕건의 치열한 각축전은 왕건의 승리로 끝났으며, 그 결과 역사는 왕건을 선인으로 견훤을 악인으로 그려 놓았고, 그 선상에서 패자 견훤의 세력기반이었던 전라도는 반역의 기운이 서려있는 역향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조선시대 세종이 전주판관으로 떠나는 이호신과 나눈 대화이다.

全州判官 李好信이 하직하니, 임금(세종)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전라도는 山水가 背馳하여 쏘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鞭撻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2년 4월 4일 을해)

세종이 이호신에게 전라도의 산수가 배치된 상이어서 인심이 험하다고 이르고 있다. 전라도를 절개와 의리의 고장이라 하면서도, 그 한편에 후백제와 풍수에 근거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선시대까지도 잔존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기 이런 인식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는 곧 통치자의 입장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존재였으며, 이런 통치자의 부담이 부정적 인식을 잉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전라도가 체제순응적 존재가 아니었으며, 막강한 힘을 소지한 두려운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반역은 지배층의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지배층에게 맞지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으로 보면 변혁과 혁명, 정당한 저항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였다.

정여립은 전주출신으로 선조대 과거 급제후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홍문관의 수찬(정6품)을 지낸 인물이다. 본래 서인으로 울곡 이이를 추종하였으나, 울곡 사후 동인으로 돌아서 울곡을 비방하였다 하여 선조의 미움을 받고 고향 전주로 낙향하였다. 비록 낙향하였지만, 여전히 당시 집권세력인 동인 사이에는 여전히 인망과 영향력이 있어서 관찰사나 수령이 다투어 그의 집을 찾는 등, 특히 전라도 일대에서 그의 명망이 높았다. 그런 그가 대동계를 조직하여, 임진왜란 발발 3년전 선조 22년(1589) 모반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3년여에 걸쳐 동인 1,000여명을 희생시킨, 동서분당후 최대의 사건으로 전라도 지역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중앙에서 활약하던 많은 호남사림들이 희생되었으며,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이 지역 출신 인재들의 중앙진출이 억제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서 양 진영이 공존했던 전라도 향촌사회를 심각한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몰아 넣었다. 호남사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차 중앙정계에서 멀어졌으며, 전라도의 사풍(士風)은 퇴락하여 갔다.¹³⁾

이 사건이 실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모반의 사실여부를 떠나, 여립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여립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상을 가졌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서인들이 모역을 조작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사상과 인물됨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관심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지만, 전라도 전주가 그 토양이되었

13) 이동희, 2000, 「정여립모반사건 이후 호남사림의 쇠락과 분열」 『우리문화』, 우리문화진흥회, pp.108~125.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훈요십조와 정여립사건은 위와는 또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훈요십조의 경우 호남차대에 관한 8조목이 고려초의 정치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 근래에 이르러 위작(僞作)설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8조 내용대로라면 호남인들의 정치적 진출이 차단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태조의 뒤를 이은 2대 혜종에 나주출신의 나주오씨 다려군의 딸인 장화 왕후의 소생이고, 최지몽(영암), 동진대사 경보(영암), 선각대사 형미(강진), 박영규(승주), 김길(광산), 김심언(광주) 등등이 모두 태조대에 활약한 전라도출신의 인물들이다. 따라서 태조 왕건이 전라도사람을 등용치 말라는 유훈을 남길 리 없다는 것이다.

더 큰 의문은 훈요십조가 세상에 알려진 경위와 그 시점이다. 훈요십조의 내용이 『고려사』 세가편에 기재되어 있어서 아무 의심 없이 태조 왕건이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같은 『고려사』 최승노전에 보면, “처음 태조가 만든 훈요십조는 병란(거란 침입: 1011년)으로 불타 없어졌는데 최제안이 우연히 최항의 집에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현종에게 바침으로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지금 전해지고 있는 훈요십조는 태조가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최항 개인 집에서 찾아진 것이다. 국가 기밀문서가 개인 저택에서 찾아졌다는 것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더욱 주목되는 것은 훈요십조가 발견된 시점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즉 중앙의 해계모니를 놓고 경주, 나주, 개경 세력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들인 훈요십조가 대두되었고, 이후 전라도세력은 뚜렷한 퇴조를 보였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훈요십조가 개작 또는 조작되어 정쟁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일찍이 일본인 금서룡씨는 훈요십조가 태조에 의해 전부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후대에 개조·첨기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실체가 애매한 훈요십조에 의해 전라도는 막대한 희생을 치렀으며, 그것도 중앙의 핵심권력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훈요십조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퇴조하였던 전라도세력이 중앙에 재등장한 것은, 신라계로 대표되는 문벌귀족정치가 종말을 고하는 무신집권기에 이르러서이다. 삼별초의 대몽항쟁기간 동안 전라도가 그 중요 근거지로 역할을 한데에는 무신집권기 전라도 세력의 재등장에 그 배경이 있다. 이후 조선초 전라도는 태조 이성계가 전주를 본향으로 표방하였지만 반개국적 성향이 강하였다. 무등산이 등급에 들지 못한 산이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고, 지리산이 불복산이라 불리게된 구전설화는 이러한 역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전라도 세력은 오히려 조선중기 사람들이 등용되면서, 마치 붓물 터진 듯이 중앙에 진출하여 조정의 중추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하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호남사람이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여 조선의 한 축을 이루고 승승장구하던 시점에서 전라도는 또다시 좌절의 역사가 되풀이되었던 것이다. 정여립 모반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반사건 또한 모반이 실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모반사건의 장본인인 정여립의 죽음부터가 의문이다. 모반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정여립이 진안 죽도로 숨었다가, 진안 현감 민인백이 잡으러 오자 자결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모반을 도모했고, 그 뒤에 대동계라는 막강한 군사집단이 실재했다면, 모반죄로 고변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아 거사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항거도 없이 죽도

로 도망가 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립의 죽음만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가 모반의사가 없었고, 대동계라는 것이 거대한 무사집단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문들로 인해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날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이 집권세력인 동인을 타도하기 위해 송익필 형제를 동원해 꾸며낸 당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서인들이 모반사건을 날조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성혼의 문인인 민인백을 시켜 진안 죽도에 있던 정여립을 타살하였다는 것이다.

전라도는 실체가 분명치 않은 정여립사건에 의해 또다시 중앙정치무대에서 실각하였던 것이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전라도세력이 중앙정치의 한 축으로 중심적 위치를 점해 가는 시점에서 실체가 모호한 사건이 발발해 그 세력이 와해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을까?

3) 동학혁명과 전주대도소¹⁴⁾

전주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전개되었던 전라도의 수부이며, 동학의 꿈이 잠시나마 실현되었던 곳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가 동학혁명의 시발지는 아니지만, 그 꿈을 이루려했던 중심 무대로서 역사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하겠다.

동학이 전라도에 처음 전래된 것은 창시자인 최제우 당대의 일이다. 동학창도직후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곧바로 동학에 대한 탄압과 억제가 이루어졌고, 최제우는 1861년 11월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도피해 그 이듬해 3월까지 머물렀는데, 이때 동학이 전라도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최제우는 전라도 진산 금산일대를 왕래하면서 동학을 전파하였으며, 동학이 전주에 전래된 것도 이 때이다. 1880년에 들어와 삼례를 중심으로 동학교세가 급속도로 커져갔으며, 1892년 삼례집회를 열어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최제우의 신원과 동학교도에 대한 수탈증지를 요구하였다.

1894년 고부농민봉기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항쟁으로 들어간 농민군은 전라도를 석권하고 4월 27일 전주성에 입성하였다.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은 그 다음날 도착하여 완산에 진을 치고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정을 『동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때는 4월 27일 전주 서문밖 장날이라. 무장 영광 등지로부터 사잇길로 사방으로 흩어져 오던 동학군들은 장꾼들과 함께 싸여 미리 약속이 정하여 있던 이 날에 수천명의 사람들은 이미 다 시장속에 들어왔었다. 때가 오시쯤 되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고개에서 일성의 대포소리가 터져나오며 수천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관을 뒤덮었다. 별안간 난포소리에 놀란 장꾼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 헤어져 달아났다. 서문으로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바람에 동학군들은 장꾼들과 같이 섞여 문안으로 들어서며 한편 고향을 지르며 한편 총질을 하였다. 서문에서 파수보는 병정들은 어찌된 까닭을 몰라 엎어지며 자빠지며 도망질을 치고 말았다. 삼시간에 성안에도 모두 동학군의 소리요 성밖에도 동학군의 소리다. 이때 쏠대장은 천천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座를 宣化堂(전라감사 집무실)에 정하니 어시호 전주성은 이미 함락이 되었다.(『동학사』)

홍계훈의 경군과 농민군은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주성을 둘러싸고 거의 매일 크고

14) 이진영, 2000, 「동학농민혁명과 전주」 『전주의 역사와 문화』.

작은 전투를 벌였다. 경군은 완산에 진을 치고, 건지산 기린봉 오목대 황학대 등에 1500명의 군사를 나누어 전주성을 에워싸고 농민군을 공략하였다.

전봉준과 김학진이 폐정개혁논에 합의하고 5월 8일 농민군은 전주성의 동북문으로 나와 빠져나갔다. 전주화약후 농민군은 전주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수행하였다. 전주감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제와 전주대도소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집강소체제가 양립하였으며, 7월초에서 8월하순까지 이 틀이 유지되었다.

그해 10월 농민군은 재봉기하여 척왜의 기치를 내걸고 북상하였으나, 우금치에서 패배, 11월 19일경 전주성으로 후퇴하였으며, 전봉준은 태인전투후 농민군을 완전 해산시켰다. 이후 전주는 농민군 처형장으로 변하였다.

5. 맺음말

전주는 신라의 백제 병합후 9주에 편제되어 전북권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조선건국을 즈음해 감영이 소재한 호남제일성으로 전라역사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전통기 전주 문화는 전라도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전라도의 문화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전주는 후백제 전환의 왕도요, 조선왕조의 풍패지향으로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심지 곧은 고도이다. 고려에 무릎은 꿇었지만 지조는 잃지 않았다. 한편 전주는 조선제일의 곡창지대 전라도의 수도로 농경시대의 경제적 중심지였다. 이런 역사성과 경제력을 토대로 전주는 전통과 예술의 도시, 예향·예도로 자리하였다. 전주사람들의 약간은 보수적이고 양반적인 기질은, 농경문화와도 관련 있겠지만 이런 지역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전주는 국가적 위기에 나라와 역사를 지키고, 역사적 전환기에 주도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의 오랜 역사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백제멸망과 훈요십조에 의해 형성된, 전라도가 풍수지리상 배역의 형세라는 부정적 인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차대가 없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지역민들에게 소외감 내지 패배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통기 이런 인식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관점임을 유념해야 한다. 전라도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존재였으며, 이런 통치자의 부담이 부정적 인식을 잉태하였던 것이다. 이는 곧 전라도가 체제순응적 존재가 아니었으며, 언제라도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반역은 지배층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역으로 보면 변혁을 뜻할 수 있다.

전주는 변혁을 꿈꾼 땅 전라도의 중심이었고 상징적 존재였다. 비록 전주는 이땅의 주도세력으로 자리한 적이 많지 않지만, 불의에 저항하고 새 세상을 꿈꾸었으며, 전통을 지키고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정도(正道)를 추구하고 진중한 문화를 꽃피웠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 훈요십조와 정여립사건이 남긴 과제로 중앙의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는 상황하에서 실체가 분명치 않은 사건이 발발해, 이 지역에 치명타를 가한 역사가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항일투쟁 속에 성장한 전주

임혜영(군산대 강사)

머리말

일제 강점 하에서의 노동자·농민운동은 전체 민족해방운동 선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식민지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노동자·농민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희생당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 모순에 지속적으로 항거하였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공장주·지주들을 옹호하는 한편 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갔다. 따라서 일제하 노동자·농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생존권 투쟁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반봉건·반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노동자·농민의 민족운동은 계급운동의 성격을 띠면서도 투쟁대상이 식민지 총독부 권력 또는 식민지 지배에 기생한 지주와 예속자본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이었다.

1. 노동운동

조선은 농업국가로 일본인들은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토지약탈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농업투자는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직 중요한 투자부문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광산 및 가공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농산물 약탈을 목적으로 한 정미업, 방직공업 등이 발전하고 지하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산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공업의 비중은 아직 농업생산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생산액 중에서도 수공업적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성장한 일본 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경제공황에 쫓긴 일본 독점자본은 그 돌파구를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 찾았다. 일본에서는 기업운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데 비해 조선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노동운동을 적극 탄압하여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진출을 도왔던 것이다.

한편 식민지화 직후 일제에 의해 강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소작농민의 증가, 농장형 지주경영의 등장 등으로 일반 소작농민들의 경작면적은 줄어들었고 토지경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영리를 추구하는 식민지형 지주경영의 결과로 소작료는 급격히 고율화했으며 종래의 영구소작제가 계약소작제로 변함으로써 농민들의 소작권은 극도로 불안해졌다. 결국 농민실업자, 농촌빈민의 상당한 부분은 농촌을 떠나 그 생활 방편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농민이 공장노동자로 수용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해마다 분출되는 이농인구를 비교적 대규모로 흡수하는 길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또 값싼 노동력으로 식민통치를 위한 기초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형편은 전북의 경우 전형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대지주의 토지집적이 가장 활발했던 관계로 이농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 지역에 오히려 공업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두노동자나 토목공사의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안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주장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일제하 노동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20년대이다. 이 때가 되면 일본 기업이 식민지 초과이윤을 노려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양적 증가, 노동조건 열악 등 제반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크게 고양되면서 자본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인하 반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단체계약권 확립, 8시간 노동제의 실시, 악질 일본인 감독의 추방, 노동조건 개선들을 제시하였다.¹⁵⁾

1931년 3월 5일 있었던 다가동 전일정미소의 동맹파업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파업 얼마전 정미소에서는 70전 하던 임금을 갑자기 60전으로 인하하였는데 노동자들의 파업에 임금인하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 실시 등 11개조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고용주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파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¹⁶⁾

1931년 4월 6일 고사동에 위치한 삼공정미소에서는 인부 30여명이 노동단체계약의 승인과 什長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동맹 파업하였다가 고용주와의 타협으로 해결되었다. 그런데 파업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전주합동노동조합 간부 김문옥 외 여러 명이 검거되었는데 여러 날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았다. 이에 인부들은 다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하고자 여러 차례 모여 회합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회합에서 단순히 구속자 석방이나 정미소의 재파업만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전주 시내 모든 공장의 총파업을 계획하였는데 경찰에 사전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¹⁷⁾

제사공업은 공정의 특성상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사공업 자본가들은 주로 가계부양적인 성격이 강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임금을 통해 상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임금계산 방식은 대개 성과급제여서 미숙련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금은 매우 적었다. 또한 공장 감독에 의해 행해지는 불량품 검사에 따른 벌금제는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더욱 더 낮추었으며 심한 경우 벌금 때문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었다.

1930년 6월 12일 전주제사주식회사 여직공들은 전주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다음 날도 전주천변에 모여 다시 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지지당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게 된 원인은 회사측에서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작업해오던 것을 오전 4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임금은 오히려 15일에 5원 20전이던 것을 2원 60전으로 인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과 노동자들이 원만히 타협을 하여 복귀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번 사건의 주모자라 하여 김화영을 해고하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김화영을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노동자를 충원함으로써 시위와 관련된 노동자들

15)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자

16)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자.

17) 조선총독부 경무국 편, 조선의 치안상황, 1933. p93.

의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¹⁸⁾

전주제사주식회사 제일공장에서는 다시 1931년 5월 12일 여직공 120명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유는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벌금을 제하고 지불하는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 전부를 회사측에서 수용함으로써 이 파업은 원만히 해결되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앞장서서 도왔던 것은 노동단체였다. 1920년 서울을 중심으로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각 지방에서도 지회가 조직되거나 지역별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전주에서는 1927년 전주노동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30년 합동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재조직하게 되었는데 이후 전주지역 노동자들에게 의식교육을 하거나 파업이 일어난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신하여 고용주와 협상을 벌이는 등 노동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전주지역의 노동운동은 정미공이나 방직공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주요한 쌀 생산지로서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주와 타협을 유도하는 한편 파업관련자들을 구속함으로써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농민운동

일제는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농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식민지하 농민의 존재형태는 봉건적 토지소유에 의한 착취와 화폐유통 및 금융기구에 의한 식민지 자본주의적 착취를 받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식민지 구조 아래 농민은 희생을 강요당한 주요 계층이었으며 소작농의 경우는 식민지 지주와의 관계까지 얽혀 있었다.

일제의 농업정책은 자국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수탈은 필연적이었다. 그리하여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즉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지주제를 법률적으로 보장한 식민지 재편정책이었다면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지주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부가적으로 쌀 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결국 식민지 농업정책에서 야기된 미곡단작지대의 확산과 토지불균형의 문제로 농촌은 더욱 피폐해져갔다.

일제는 농민통제의 일환으로 식민지 지주들을 포섭하고 육성하여 기득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즉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을 통하여 지주들을 포섭하였고 지주들은 농촌사회의 대리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로부터 이중적인 지배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식민당국의 보호를 받는 지주들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소작농의 권한은 위축되어 이제 소작권마저도 안정되지 못하였다.

결국 식민지 지주제는 1929년 농업공황을 계기로 토지소유의 불균형에 따른 농민투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가경제의 피폐로 인한 소작쟁의의 격증 현상은 식민지 지주제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일제는 1930년대 초반 자작농창설 계획, 조선농지령, 농가경제개생계획, 부채정리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체제안정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식민지 사회의 기본 토대인 농촌사회의 모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¹⁸⁾ 조선일보, 1930년 6월 30일자.

한 식민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식민지하의 농민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갖고 조직적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이며 일제 탄압으로 1930년대 후반 지하투쟁으로 이어졌다. 1920년대 초반의 소작인조합이 1920년대 이후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개편되었다. 이제 농민운동이 자작농층을 포함한 중농층까지 포함시키면서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식민지 권력은 농민들의 대지주 투쟁을 억압하였으므로 농민들의 투쟁은 반제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제의 전라도에 대한 토지 및 식량 수탈이 본격화된 것은 1899년 군산 개항 이후의 일이다. 특히 전주·군산간 도로가 1909년 9월 완공되면서 토지집적이나 식량반출은 더욱 용이해졌다. 1910년 12월말 현재 전국에서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지주는 70명에 달했는데 그 중 29명의 경영지가 전북에 있었다.

그런데 지주들의 농장이 확대될수록, 식민지배가 계속될수록 농촌은 토지에서 이탈되는 빈농층의 증가와 더불어 춘궁기에 초근목피하는 窮民이 격증하는 상황이었다. 전주의 경우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거듭된 재해로 인하여 농촌은 날로 피폐하여져서 전주서의 조사에 의하면 1932년 현재 총호수 34,256호 172,385명 중 겨우 그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718호에 3,41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바로 구제하지 않으면 굶어죽기 직전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¹⁹⁾

이런 상황에서도 지주들의 횡포는 여전하였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소작쟁의는 소작료가 너무 높아 이를 낮추려하거나 빚을 면제받기 위해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소작쟁의를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지주에 의한 소작권의 이동이었다. 지주는 종래에는 영구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소작농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소작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 그러므로 소작료가 높고 낮음을 논하기 이전에 소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토지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생활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을이 되면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모범적으로 납부해야 했다.

1923년에 있었던 전주지역 농민들의 투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지주들로부터 아무 이유없이 소작권을 빼앗긴 농민 천여명이 전주공회당에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 이들은 먼저 당국과 교섭, 군수와 경찰서장을 만나서 탄원하였고 군수는 지주를 설득한다는 약속을 하여 농민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구소작인들이 종전대로 모내기를 하자 새로 소작권을 얻은 농민들이 업무방해죄를 고소하는 등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농민들이 다시 당국에 문의했을 때에는 태도를 바꾸어 지주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농민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5월 10일 소작권을 빼앗긴 농민들은 전주읍내에 모여 자신들의 처지를 밝히는 집단시위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소작권 회복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전주소작인상조회였다. 상조회에서는 지주들을 상대로 대항하기 위해 각 지역에 소작인 자위단을 조직하고 소작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지주측에서는 상조회원들의 소작권은 무조건 박탈함으로서 상조회 활동을 방해하였다.

1930년대 들어서도 지주들의 소작권 이동은 여전하였다. 1930년 전주 奎益農場에서는 계속 소작을 하고 싶은 작인은 매 두락에 보증금 10원씩을 바치라고 하는 횡포를 부렸다.²¹⁾ 물론 농민들은 보증금 납부를 거부하였고 7백여명이나 되는 소작인들이 한꺼번에 소작권을

19) 매일신보, 1932년 4월 15일자

20) 동아일보, 1923년 5월 10일자.

21) 조선일보, 1930년 1월 19일자.

얹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소작인들은 당국에 탄원을 하는 한편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또 右近農場에서는 소작료를 올리고 소작권을 이동하려고 해서 소작인들이 이에 쟁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²²⁾ 이 右近農場의 소작쟁의는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폭동적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 쟁의가 도화선이 되어 1930년에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쟁의가 일어나게 되었다.²³⁾

농민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문제로는 지세를 들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내야 함이 원칙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소작농민이 지세공과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은 지세 및 공과금의 부담이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의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었다.

전북지방의 농민운동이 조직성이나 투쟁성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전북지역의 민족운동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농민의 생활이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짐에 따라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²⁴⁾ 그러나 이 지역의 농민운동이 조직성이나 투쟁성에서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1925년말 고등경찰의 임무상 단속이 필요한 소작단체가 전주부에만 19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농민들은 조직을 통한 공동투쟁의 연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은 대부분 지도부가 지주출신의 인텔리였고 조합원은 대개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자체의 한계도 있었다.

또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은 이 지역에 특히 일본인 지주들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특히 전북에서도 전주 지역의 소작농가 중 일본인 지주에 예속된 농가비율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따라서 한국에 농업이민을 적극 장려했던 식민 당국으로서는 일본인 지주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야만 했다.²⁵⁾ 더구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였다는 점도 식민지 당국이 더욱 경계했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농민들은 보여주었다.

맺는말

일제하 노동자·농민운동은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한 식민지 상황에서 반제투쟁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민족해방운동 선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주에서는 다른 공업은 거의 발달하지 않은 반면 지역적 특성상 농산물 약탈을 위해 설립된 정미업이나 방직공업이 공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연적으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의 선두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김제, 익산 등의 지역과 함께 전주는 동양척식회사, 일본인 소유의 농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북의 다른 지역에서보다 소작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소작쟁의의 중심지, 식민지 지주제에 대한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22) 동아일보, 1930년 4월 8일자.

2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사전, 독립기념관, 1996. p.20.

24)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 「전북의 역사와 문화」, 신순철,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항일운동, p.273.

25) 1927년 현재 전주부의 전체 소작 농가 23,185호 중 일본인 지주에 예속된 농가는 8,051호로 34.7%를 차지한다.

東學農民軍의 전주성 점령과 역사적 의의

배항섭(고려대 교사편찬실장)

1. 머리말

3월 20일 茂長에서 起包한 농민군은 기포 후 한달이 조금 더 지난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무장한 농민들이 단위 고을의 범위를 벗어나 '난'을 일으킨 것부터 이미 일반적인 '민란'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營兵과 京兵을 잇따라 격파한 데 이어 전라도의 首府인 전주성을 점령한 사실은 民衆運動史上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전주성 점령은 제1차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총력을 기울인 성과였다. 바로 그 점에서 전주성 점령 이후 농민군의 사정, 특히 전주화약의 경위와 내용은 당시 농민군의 주체적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의 진격과정을 간단히 살핀 다음, 이어 전주성 점령 이후 농민군과 관군의 접전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농민군과 관군간에 전주화약이 맺어지는 배경과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전주성 점령까지 농민군의 진격과정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발발초기 농민군의 병기는 죽창, 활, 화살, 창이 있었고, 총은 구제의 화승총이었다. 그러나 농민군들은 木銃과 弓箭 등을 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관군 측으로부터 빼앗은 스나이더 총 400정, 마티니 총 150정 등 1,000여 정의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목면과 金巾으로 제작된 '保國安民倡義旗'를 앞세운²⁶⁾ 농민군은 대체로 砲銃隊 槍隊 弓隊 投藥隊 斥候隊 騎兵隊 輜重隊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밖에 會計와 의사 등도 대오에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대오를 갖춘 농민군이 기포한 이후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의 진격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장기포 이후 전주성 점령까지 농민군 주력부대의 진격로는 무장(3/20) - 고창(3/20-3/21) - 흥덕(22) - 부안·정읍 - 고부(3/23) - 고부·태인(3/24) - 금구·원평(3/25) - 고부·백산·예동 - 태인 용산면 화호리(3/26-3/38) - 태인(3/29) - 원평(4/1) - 금구(4/2) - 태인 인곡면 북촌 용산·부안 부흥역(4/3-4/5) - 고부 도교산 황토현(4/6) - 정읍 삼거리(4/7) - 흥덕 - 고창(4/8) - 무장(4/9-4/11) - 영광(4/12-4/15) - 함평(4/16-4/17) - 무안 삼내면(4/18) - 함평(4/19-4/20) - 장성(4/21-4/22) - 갈재에서 정읍 사이(4/23-4/24) - 정읍 - 원평(4/25) - 두정(4/26) - 전주성(4/27)이었다.²⁷⁾

12) 크기는 금건으로 된 것이 폭 2尺 4-5寸 길이 7척 정도, 목면으로 된 것이 폭 1척 8, 9촌 길이 5척 정도 되었다.

13) 『隨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5; 『兩湖剿討臚錄』, 『東學亂記錄』 上; 『古阜民擾日記』,

전주성 점령은 이미 사발통문 거사계획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무장 기포 직후에도 거듭 확인되었다.²⁸⁾ 3월 26-29일 경 백산대회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은 농민군은 군기와 군량을 확보하여 전주성 공격에 나섰다. 4월 2일에 금구까지 진격했던 농민군은 감영 포군 1만여 명이 농민군을 치러온다는 소문을 듣자 4월 3일 태인으로 후퇴하였다.²⁹⁾ 이때 농민군의 수는 무장기포 당시보다 2, 3천 여명이 불어난 6, 7천명이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고 활동지역도 무장, 고창, 정읍, 고부, 태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후 다시 고창 무장 영광 함평 무안 등지를 석권하며 세력을 강화한 농민군은 4월 23일 장성전투에서 처음으로 京軍과 전투를 벌여 격파한 다음 노령을 넘어 정읍 쪽으로 향하였다. 전주를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루를 숙영하고 24일 정읍에 들어간 농민군은 招討營 運糧監官 金平昌의 집을 공격한 다음 25일 정오 무렵에는 원평에서 국왕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李敷應 裴垠煥을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금구를 거쳐 전주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豆亭에서 하루를 더 숙영한 뒤 4월 27일 오전 10시경에는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이 때 농민군의 규모는 2-3만 명이였다.³⁰⁾

전주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농민군 측에서는 수 백명의 농민군을 상인으로 위장하여 성안에 투입시켰다.³¹⁾ 성문은 이와 같이 위장해서 들어간 농민군, 그리고 농민군과 내통한 관속들에 의해 안에서 열렸다.³²⁾ 감사 김문현은 달아났고 전주성이 함락되는 시각 초토사 홍계훈은 영광에서부터 계속 농민군의 쫓무니를 쫓아다니다가 태인현에 도착하여 있었다.

3. 농민군의 규율

제1차 농민전쟁을 치르는 동안 2차례에 걸쳐 행동지침과 규율을 발표하였다. 우선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는 농민군의 행동지침과 관련되는 <不殺人 不殺物> 조항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의 행동지침은 영광에서 나왔다. 4월 12일 영광에 들어간 농민군은 영광 일대에서 4일 간 留陣하며, 전열을 새로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영광에 주둔하던 무렵 농민군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자 농민군 지도부는 영광에서 농민군의 규율을 단속하는 두 종류의 행동준칙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³⁾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등에서 정리. 자세한 내용은 배항섭,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2002 참조

28) 『隨錄』, 179쪽

29) 政府記錄保存所, 「判決宣告書原本: 全瑿準」, 『東學關聯判決文集』, 29쪽; 『隨錄』, 166쪽; 『梧下記聞』, 59쪽

30) 제1차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1989년 겨울호 및 1990년 봄호; 정창렬, 『甲午農民戰爭 研究 - 全瑿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참조

31) 감영에서는 평소보다 장꾼들의 수가 많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끝내 그것이 위장한 농민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하였다(『南遊隨錄』, 『총서』 3 205쪽 참조).

32) 『南遊隨錄』, 위와 같음; 『兩湖招討營錄』, 『東學亂記錄』 上, 172쪽.

33)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3월 29일~4월 4일 사이(鄭昌烈, 앞의 글, 1991, 140쪽), 혹은 3월 25일 <4個名義>를 게시하였다는 鄭喬의 「大韓季年史」를 인용하여 백산대회 때(慎鋪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 研究』, 1993, 154쪽)인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朝鮮暴動實記』에는 '靈光賊營의 軍令狀과 戒軍令'이라는 소제목 하에 소개되어 있다(『총서』 25, 204쪽). 또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對敵時 約束 4項

1.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刀而勝者 爲首功(매번 대적할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2. 雖不得已戰 切勿傷命 爲貴(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3. 每於行進所過之時 切勿害人物(매번 행진하여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다)
4. 孝悌忠信人所居之村 十里內勿爲屯住(孝·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촌락으로부터 10리 이내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12條 戒軍號令

1. 降者受待(항복한 자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2. 困者救濟(곤경에 처한 자는 구제해준다)
3. 貪者逐之(탐욕한 관리는 쫓아낸다)
4. 順者敬服(공순한 사람에게는 敬服한다)
5. 走者勿追(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6. 飢者饋之(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7. 奸猾息之(간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8. 貧者賑恤(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9. 不忠除之(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逆者曉諭(반역하는 자에게는 효유한다)
11. 病者給藥(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不孝殺之(불효한 자는 죽인다)

위의 조항은 우리들이 舉行하는 근본이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地獄에 가들 것이다. 위에 제시한 농민군의 행동준칙이 담고 있는 정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명을 존중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정신, 둘째, 유교적 충효정신, 셋째, 탐관오리에 대한 반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약속 4항〉에는 인명을 중시하는 내용(1, 2항)이 주목되며, 〈12개조 계군호령〉에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내용(2, 6, 8, 11)이 두드러진다. 이는 전봉준이 농민전쟁을 일으킨 “拯貧濟窮”의 정신과도³⁴⁾ 맥락을

『에는 영광으로 간 농민군의 동태를 보고하는 4월 16일자 전라감사의 전보 내용과 함께 소개되어 있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쪽), 『東匪討錄』에도 4월 19일 도착한 영광군수의 보고내용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894年の農民戰爭編 1』, 319~320쪽). 『東京朝日新聞』에도 농민군이 한양호를 공격한 기사와 영광의 농민군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실고 있고(『東京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2, 352쪽), 『甲午朝鮮內亂始末』에는 이러한 군호와 계문이 내려진 시점에 농민군이 무장 영광 지역에 주둔해 있다고 하였다(『총서』 25, 120쪽). 다만 『續陰晴史』에는 4월 27일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사실에 이어 소개되고 있다(『續陰晴史』 上, 311쪽).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4개항의 약속과 12개조의 戒軍號令은 농민군이 영광을 점령하는 무렵 농민군의 수가 늘어나자 내부 규율을 강화할 필요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万報朝』에는 이 가운데 4개 항의 약속이 무장에서 정한 규율인 듯이 밝히고 있으나, 이 때 농민군이 매 20리마다 1천여명 씩 주둔해 있었다고 한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역시 영광에서 정한 사실을 오보한 것으로 보인다(『万報朝』, 明治 27年 6月 5日, 『총서』 22, 397-398쪽). 또 『大阪朝日新聞』과 『万報朝』에서는 12개조의 계군호령이 12개의 軍旗에 쓰여 있다고 하였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7年 6月 3日, 『총서』 23, 17쪽; 『万報朝』, 明治 27年 6月 5日, 397-398쪽).

³⁴⁾ 權秉憲은 전봉준이 농민전쟁을 일으킨 정신을 “革舊鼎新拯貧濟窮” 8字라고 하였다(『갑오년이야기』, 『天道教會月報』 259, 34쪽).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각지를 석권하는 과정에서 농민군은 반봉건적 구호나 요구를 제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규율을 유지하였다. 이에 대해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관청의 건물을 파괴하고 문서와 장부를 불태우고 군기를 훔치고 관청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수령을 잡으면 바로 죽이지 않고 잡아 가두고 치욕을 주었다. 한편으로 구실아치에 대해서는 죽이지는 않고 불기를 치고 주리를 트는 형벌을 가하였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쉼을 요구할 뿐 부녀자나 재물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적의 기세가 점점 커졌다.³⁵⁾

또 농민군들은 필요한 잡화를 살 때도 그 대금을 부족함이 없이 지불하는 등 민중을 약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민군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물가가 올랐고 상인들도 농민군을 환영하였다. 일부 豪農紳商도 가담하여 농민군에게 兵糧을 제공하였다. 이에 반해 관군에 대해서는 “뺨을 보는 것과 같이 꺼려하였다”.³⁶⁾ 그 결과 민중들은 농민군에 대해서는 “스승을 만난 듯이 좋아”할 정도로 더욱 호응하였다.³⁷⁾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도 농민군은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성내의 주민들을 위무하였다. 길에서 부녀자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축하지 않고 길가의 아동들에게 부축하여 일으켜주도록 하였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慰諭하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모내기할 때를 놓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성을 점령한 날 오후에는 성내 장시에는 사람들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왕래하였고 온 성안의 주민들이 모두 화합하였다고 하였다.³⁸⁾

4. 전주성 점령과 <폐정개혁안>의 요구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하루 뒤인 4월 28일에야 전주에 도착한 초토사 홍계훈은 전주성 밖의 完山에 진을 치고 농민군과 대치하며 몇 차례 交戰하였다. 관군 측은 5월 2일까지의 몇 차례 전투에서 승세를 취함으로써 사기가 고양되고 있었으나,³⁹⁾ 洪啓薰은 5월 2일까지도 ‘彼衆我寡’하여 성을 포위하기 어려우며, 또 농민군의 후원군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므로 청군과 은진의 防守兵, 巡邊使 이원회의 평양군 등이 빨리 와주기를 독촉하며 매우 초조해 하고 있었다.⁴⁰⁾

그러나 5월 3일 벌어진 전투는 양측의 戰勢를 바꾸어 놓았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洪啓薰은 청군의 출병을 득달하던 5월 2일까지의 입장을 철회하여 5월 4일에는 조정에 電文을 보내 청군이 상륙할 경우 양호지방에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동정을 살핀 후에 상륙하도록

35) 『梧下記聞』, pp. 54~55. 『만조보』에서 “조금이라도 양민의 재산을 탐하거나 부녀자를 겁간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 체포하여 衆兵이 보는 앞에서 효수하고 경계하여 군기가 매우 엄정하였다”고 평가하였다(『萬朝報』, 明治 27年 6月 21日, 『총서』 22, 461쪽)

36) 信大清三郎, 『동학당의 난』,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여강출판사, 1991, 131쪽 각주 27) 참조.

37) 『梧下記聞』 수필, 61쪽

38) 『南遊隨錄』, 『총서』 3, 205-207쪽 참조.

39) 『梧下記聞』 首筆,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1, 여강출판사, 1994, 80쪽

40) 『兩湖電記』,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6, 119쪽

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¹⁾

이와 반대로 이미 5월 2일까지의 몇 차례 전투를 겪으며 동요하기 시작하였던 농민군 진영은⁴²⁾ 5월 3일에 벌어진 전투에서 패하여 전봉준이 총상을 입고 적지 않은 농민군이 사상하는 타격을 입었다. 그동안 각지를 진격하여 승승장구하던 농민군은 오히려 수세적 입장으로 몰리게 되며, 농민군의 뒤만 쫓아다니던 관군 측은 공세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주성 점령 이후 농민군 측이 오히려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농민군의 脆弱한 역량과 그에 따른 전술적 오류 때문이었다. 제1차 농민전쟁의 전개양상은 세몰이로 요약할 수 있다. 무장에서 전주성을 점령할 때까지 주력부대는 각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데 그쳤을 뿐, 곧바로 농민군을 규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역에 활동의 거점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농민군 주력부대가 떠난 고을에는 곧 관군이 들어와 잔여 농민군을 체포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전주성 점령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민군이 관군에게 포위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또 청일 양국 군의 출병 사실도 농민군들을 당혹케 하였다. 훗날 전봉준은 자신들의 기병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청일 양국군의 戰場이 된 점을 “千秋의 恨”으로 여길 정도였다. 따라서 전주 점령 후 가시화한 청일군대의 출병사실도 농민군으로 하여금 전주성에서 관군과 계속 대치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주화약 직후 농민군 지도부는 각지에 통문을 띄워 “청국 군이 물러간 뒤에 다시 의기를 들까 하니 각 군의 장졸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하였다.⁴³⁾ 농민군 지도부가 청일 양국 군대의 철군을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였던가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정부 측으로서도 마찬가지였다. 茂長起包 후 농민군들이 전라도 일대를 석권하며 그 세를 불려나가자 조선정부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농민군의 진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청나라에 援兵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에 따라 군량 및 군수품 조달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 청나라가 출병하면 일본군도 출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개입하여 조선이 국제적인 戰場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미 원병요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부터 지적되어 왔다.⁴⁴⁾ 또 청나라 군대의 출병이 결정된 뒤에도 청국군이 도착하더라도 상륙은 잠시 보류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⁵⁾ 이런 상황에서 洪啓薰이 전해 온 5월 3일의 승전보와 청군의 상륙을 보류시켜 달라는 요청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외국군의 출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5월 4일 밤 청국 정부에 電文을 보내 군대의 상륙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⁴⁶⁾ 5월 5일에는 外務督辦 趙秉稷이 主事 李鶴圭를 일본공사 杉村濬에게 보내 5월 3일 전투의 승리를 알리는 洪啓薰의 전문을 제시하며, 사태가 이제 진정되고 있고, 또 일본의 출병은 러시아나 영국의 파병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본군의 출병을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⁷⁾

그러나 청군제독 聶士成은 5월 6일 아침부터 군대를 이끌고 白石浦에 상륙하여 아산으로 들어갔으며, 軍糧과 무기들을 백석포에 인접한 內島로 실어내렸다.⁴⁸⁾ 일본군도 5월 6일부터

41) 『兩湖電記』, 121쪽

42) 『梧下記聞』 수필, 80-81쪽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89쪽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2쪽, 164쪽

4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64쪽

4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0쪽

4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0쪽

인천에 상륙하기 시작하였고, 5월 7일 오후에는 일본공사 大鳥圭介의 인솔 하에 420명의 일본군이 서울로 입성하였다.⁴⁹⁾ 이들은 서울이 평온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하며 철병을 거부하였다.⁵⁰⁾

이러한 사정들은 농민군과 관군 모두에게 和約을 서두르게 하였다. 5월 4일 농민군 측에서는 '濟衆生等義所'의 명의로 <彼徒訴志>를 洪啓薰에게 보내 전주성 점령 후 처음으로 '歸化할 뜻'을 전달하였다.⁵¹⁾ 이 때 농민군측에서는 27개조의 <폐정개혁안>를 함께 전달하였다.⁵²⁾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轉運營之漕卜 自該邑上納例復古事
- 2 均田官之幻弄陳結 害民甚大 革罷事
- 3 結米 依舊大同例 復古事
- 4 軍錢 春秋每戶一兩式 元定事
- 5 還穀 舊伯既爲拔本收錢 則更勿還徵事
- 6 勿論某處 築湫收稅 革罷事
- 7 該邑地方官 買畚用山於本邑 依律勸處事
- 8 各邑市井各物件 分錢收稅 都買各邑革罷事
- 9 公錢之犯逋 千金則殺身贖罪 勿排於族處事
- 10 私債之年久者 挾官長勒捧 一併禁斷事
- 11 列邑吏屬處 捧任債出差 勿施嚴禁事
- 12 恃勢力奪人先壘者 殺其身懲勵事
- 13 沿陸各項新設稅錢 一併革罷事
- 14 各浦港潛商貿米 一併禁斷事
- 15 各浦魚鹽稅錢 勿施事
- 16 各邑官衙物種所入 從時價排用 詳定例 革罷事
- 17 貪官汚吏 侵虐殘民 一一革罷事
- 18 束學人無辜殺戮係凶者 一一伸冤
- 19 電報局 爲弊民間最大 革罷事
- 20 裸負商 雜商作黨行悖 永永革罷事
- 21 歉年白地徵稅 勿施事
- 22 烟役別分定加斂條 一併革罷事
- 23 結上頭錢 考錢各色 年增歲加 一併勿施事
- 24 京營兵邸吏料米 依舊例 減削事
- 25 賑庫革罷事
- 26 各國人使處港口 不得入都城設館事
- 27 奉國太公監國攝政事

이어 5월 6일 오후 2시경에는 농민군 측에서 두 사람의 使者를 招討使에게 보내 귀화하려 하니 해산 시에 신변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⁵³⁾ 5월 7일에는 5월 4일에 요구한 폐정개

48) 『南征日記』, 232-3쪽

4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4쪽

5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71-272쪽

51) 『兩湖招討臚錄』, 『東學亂記錄』 상, 207쪽에는 <賊黨訴志>로 나와 있으나, 영인본에는 <彼徒訴志>로 되어 있다(『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6, 66쪽 참조).

52) 『兩湖招討臚錄』, 207-208쪽

53) 『兩湖電記』, 123-124쪽

혁조항을 국왕에게 보고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⁵⁴⁾ 또 같은 날 전라감사 金鶴鎭이 농민군 측에 裨將을 보내 효유문을 전달하자,⁵⁵⁾ 농민군 측에서는 舊監司 金文鉉과 招討使가 탄압 일변도로 대응한 점을 비난하며, 이미 초토사 홍계훈에게 올린 바 있는 폐정개혁 요구조항을 국왕에게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다.

이 글에서 농민군측은 자신들이 봉기한 목적은 나라의 근본인 民을 도탄에 빠뜨린 貪官汚吏와 國政을 操弄하는 閔氏戚族에 대한 반대에 있으며, 萬民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招討使에게 올린 바 있는 폐정개혁 요구조항을 국왕에게 啓達하여 輔國安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⁵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5월 8일 관군 측은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계달할 것을 약속하고 勿侵表를 내어줌으로써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⁵⁷⁾

5. 맺음말

무장한 농민들이 단위 고을의 범위를 벗어나 '난'을 일으킨 것부터 이미 일반적인 '민란'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營兵과 京兵을 잇따라 격파한 데 이어 전라도의 首府인 전주성을 점령한 사실은 民衆運動史上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전개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성 점령이 가지는 의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주성 점령시 농민군이 관군 측에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농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생존마저 위협하던 봉건적 모순과 폐해였다. 봉건적 모순과 폐해는 '민란의 시대'라고 불리는 19세에 다발한 각지의 민란에서도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민란에서는 자신들이 살던 郡邑 단위의 고을에 국한된 모순과 폐해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반면 <폐정개혁안>은 전국적인 차원의 모순과 폐해를 망라하다시피 하여 적시하며 그 矯正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주성 점령시에 제시한 <폐정개혁안>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적체되어 온 모순과 폐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총합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폐정개혁안> 대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이전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전주성 점령과 <폐정개혁안>의 요구는 봉건적 사회와 모순에 대한 총체적 청산을 시도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2. 전주성 점령은 이후 집강소 시기 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반봉건개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호남의 首府를 점령하였던 경험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에 맞서 반일투쟁을 벌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 점에서 전주성 점령과 <폐정개혁안>은 한국에서 근대 사회를 열어가는 민중들의 힘찬 첫 걸음이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후 항일의병운동과 3.1운동으로 이어짐으로써 근대 민족운동의 정신적 뿌리 역할을 하였다.

3. 전주성 점령 시에 제시한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원래의 뜻대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농민군의 기세와 분노에 밀린 지배층은 신분제 폐지와 인재의 등용을 포함하는 한국

54) 『兩湖電記』, 150쪽
 55) 『南遊隨錄』, 5월 11일조, 『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 3, 210-211쪽. 李復榮은 이 부분을 사람을 통해 입수한 齣畵를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어서 내용과 날짜 등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6) 『南遊隨錄』, 5월 11일조, 211-212쪽
 57) 『兩湖電記』, 150쪽

최초의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61년의 4. 4.19와 1980년의 5월의 광주민주화 운동이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면, 전주성 점령은 한근근대사의 서장을 열었다는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전주 대도소 설치와 집강소체제

김양식(충북학연구소 연구원)

갑오년 전주는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였다. 그해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 전주에서는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끝에 전주화약이 체결되었고, 7월 6일에는 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전주회담이 열리고 전봉준이 재기병하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갑오년 여름 전주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으면 자세히 답변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지금까지 집강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은 김학진과의 7월 6일 전주회담을 통해 집강소체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전주 감영에는 全羅左右大都所가 설치되고 도집강에 송희옥이 임명되었는데, 이곳에서 전라도내의 집강소를 총괄 지휘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소위 집강소기를 새롭게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새로운 틀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894년 5월에서 9월을 보는 시각과 분석틀이 오지영의 <<동학사>>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조화, 해체와 통일이라는 균형잡힌 해석이 요구되며,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더욱이 소위 집강소기는 갑오개혁, 청일전쟁과 맞물리면서 농민군의 활동과 지향성 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기존 틀이 해체되고 여러 노선과 세력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즉, 시대적인 상황변화와 운동의 전이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눈여겨 보아야 하며, 그래야만 혁명적인 역동성과 운동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본 발표에서는 전주화약 이후 정부와 농민군 양쪽의 대응과정을 살펴본 뒤, 그 최종책으로 나타나는 전주회담과 그 결과 성립되는 대도소의 전주 설치 및 집강소 운영, 그리고 전주 대도소가 철폐되고 전봉준부대가 재기병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 동향

1. 1차 수습방안과 농민군 반응

(1) 전라감사 김학진의 1차 수습방안

전주성을 철수한 농민군 지도부는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을 거듭 요구하였고, 정부측을 대표한 전라감사 김학진은 농민전쟁을 수습하고자 그 방안의 하나로 執綱案을 적극 제시하였다.

김학진은 5월 20일 전후에 보낸 曉諭文을 통해,⁵⁸⁾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해산을 조건으로 한 6개항의 사후수습책을 제시하였다.

- 弊政之爲害於民者 既有所面承聖教者 一切矯革 固不待爾等之言 而小者營革罷 大者方啓聞請革事.
- 朝廷既許爾等歸化· 爾等所居面里 各置執綱 如有爾等冤鬱之可言者 該執綱具由訴營門 以待公決事.
- 爾等兵器· 各納在郡縣事.
- 兵器還納之外 凡係財穀等件· 以永永勿論之意 自營門發關各邑事.
- 今年戶役與各項公納 當一一除事.
- 諸般急務 次第施措·

위 수습책 골자는, 첫째 정부측 주도의 폐정개혁, 둘째 執綱의 呈訴를 통한 民願 처리, 셋째 무기 반납, 넷째 귀가 농민군에 대한 신변과 생업 보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같은 제의는 전주화약 이후 정부측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첫 수습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본 발표와 관련하여 주의를 끄는 대목은 둘째 항의 집강문제이다. 이 집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집강소가 설치되는 시점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이 효유문상의 집강은 면리 단위로 존재하던 기존의 執綱層이다.⁵⁹⁾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문의 문맥상 집강이 두어진 시점이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라는 점, 또 하나는 기존의 면리 집강들이 농민전쟁 당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농민군을 조속히 귀가시켜 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유지하려는 김학진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첫 수습방안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제도적인 틀내에서 그 방법을 찾았을 것이며, 그것이 곧 향촌사회의 풍기를 단속하고 시비를 살피는 집강들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었다. 특히 당시 집권층은 사회혼란과 농민전쟁을 鄉約과 五家作統制를 통해 수습하려고 했던 만큼, 그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면리 집강을 적극 활용하려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2) 농민군 반응

위와 같은 수습방안에 대해 농민군지도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폐정개혁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이다. 김학진이 밝힌 개혁의 원칙은 원론적인 차원일 뿐 구체성이 없었다. 또 김학진이 제의한 집강은 기존의 행정체제와 지배질서에 종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민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고 귀가한 농민군의 신변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에 반해 농민군 지도부는 폐정개혁안에 관한 한 강경한 입장이었고, 개혁안이 시행되지 않는 한 결코 해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둘째 이유는 신변보장 약속의 허구성이다. 5월 중순 금구·정읍·고부에서는 吏校·奴舍들이, 금구와 나주에서는 지방관들이 귀가한 농민군의 가산을 적몰하거나 살해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정부측에서 밝힌 신변안전 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58) 이 曉諭文은 金堤에 5월 19일자(『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114쪽), 茂朱에 5월 22일자(『隱錄』, 37~39쪽, 甘結) 발송되었고 泰仁에 5월 22일경(『兩湖電記』, 5월 22일 전보), 求禮에 6월 3일 각각 도달되었다(『梧下 記聞』 2, 39~41쪽).

59) 노용필은 이 집강을 농민군이 임명한 집강으로 보고(『東學史』와 執綱所 研究)(국학자료원, 2001), 166-167쪽, 이를 근거로 농민군들이 5월에 독자적으로 집강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배항섭은 관측에서 임명하는 집강으로 파악하였다(『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153, 1997, 81쪽).

더욱이 5월 19일 정부군이 서울로 돌아간 이후 각지의 동학도와 농민층은 곳곳에서 떨쳐 일어나 점점 세력과 활동폭을 넓혀나갔고, 향촌사회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일부 동학농민층의 활동은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의 통제도 벗어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를 전제로 한 김학진의 1차 수습방안은 수용될 리가 없었다. 김학진의 효유문을 받아본 농민군은 오히려 코웃음 칠 정도였다.

2. 2차 수습방안과 농민군 반응

(1) 전라감사 김학진의 2차 수습방안

이렇게 농민군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김학진도 농민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학진은 6월 7일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김학진은 군사마 송인회를 농민군 진영으로 직접 보내, 그의 뜻과 귀화인에 대한 앞으로의 수습책을 직접 전하게 하였다.

本使之曉諭爾等 非止一再 爾等之訴冤 亦云累矣 無賴之賊 爾等各就其土 擇謹
 慎有義者爲執綱 隱現隱捕 以交該邑勘處 如或執綱難擅이거든 指名報官 以爲設法捕捉 至若羅
 州之當初刑殺 今日以後 自有本使適宜處理(『草亭集』, 四諭道內亂民文 開國503年甲午6月初
 7日)

. 自此以後 俱是改過之平民 切勿以舊愆指目 雖言語之間 出入之際 無或有絲毫碍滯이되 兵
 器之來納者 一一照數 捧留軍器庫 隱即馳報 至於不恒之類 籍托起노者 亦當自其中定執綱 隱現捉納於本
 邑 至於歸化者 安接之方 向已發關各邑 有所後錄條列⁶⁰⁾

상단은 김학진이 농민군에게, 하단은 각 군현에 보낸 것이다. 내용은 농민군으로 하여금 집강을 뽑아 고을 치안을 담당할 것, 나주문제 처리, 지방관의 집강 활동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⁶¹⁾

이같은 조치는 5월 20일경에 밝힌 수습방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執綱問題에 관한 한 전혀 새로운 제의가 아닐 수 없다. 김학진은 농민군 대표를 집강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집강의 권한은 농민군에 대한 안전귀가 조치와 부랑배 단속과 같은 치안기능과, 앞의 6개항 수습방안에 들어 있는 呈訴機能 등이었다.

이는 농민군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사실상 농민군 조직과 활동을 정부측에서 인정하고 향촌사회의 자치기능을 농민층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로써 농민군은 집강을 임명하고 그 집무처로서 집강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김학진이 제의한 것과 같은 집강은 어느 정도나 임명되었을까. 현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金鶴鎮連關營下 勿壞撫局 聖烈(순창군수)孤立 無以爲計 乃聽吏民託

60) 『草亭集』 3, 230쪽, 甘結五十三州. 이 감결은 원문에 7월로 되어 있으나, 6월 15일자 “四諭道內亂民文”과 대동소이하고 “因全瑋準等稟辭 去月十五日甘飭”(『隱錄』, 60~61쪽)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6월 15일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61) 노용필은 6월 초순경에 전봉준과 김학진이 전주 감영에서 1차 회담을 갖고 집강소에 대한 정부의 공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자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다(앞 책). 이는 본 발표내용과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발표자는 6월 당시 김학진과 전봉준이 직접 만나지 않고, 김학진의 군사마 송인회 등이 전주와 농민군진영을 오가면서 막후교섭을 벌인 것으로 보았다.

入道 設都所 置執綱 管束境內 禁他賊之肆掠者”(『梧下記聞』 2필 6월조)라는 淳昌의 예가 유일하다.

*장흥·강진: 농민군이 도소를 설치하고 도회를 열어 반봉건투쟁 지속함.(日史)

*농민군 지도부

▶전봉준: 6월초 淳昌, 6월 9일경 담양, 이후 玉果(6.14)→光州(6.16)→南平(6.17)→綾州(6.18), 7월 2일경 남원 진입. 이때 전봉준은 省察을 비롯한 농민군 300여명을 인솔하고 있었고, 집을 떠난지 오래 된 농민군에 대해선 귀가 조치를 하고 새로운 농민군을 징발하여 호위군으로 충원하였으며, 필요시 각지에 전령을 보내 농민군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전달. (『日本人』에 근거).

▶ 김개남: 5월 28일경 장성 白羊寺, 6월 8일경 순창, 그뒤 玉果(6.9)→潭陽→昌平→同福→樂安→順天→谷城을 경유하여 6월 25일경 남원 진입.(『嶺上日記』에 근거).

이상과 같은 6월 농민군의 동정으로 보아, 김학진이 새로 제의한 執綱案도 농민군과 그 지도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각지의 농민군세력은 날로 확대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라도내의 상황은 무정부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6월 하순부터 남원에 속속 모여든 농민군 주력부대는 전반적으로 강경한 분위기였고 그 기세 역시 대단하였다. 6월 7일 김학진이 제시한 수습안이 수용될 분위기는 아니었다.

II. 全州 大都所의 설치와 집강소체제

1. 전주 회담과 집강소 설치

전라감사의 집강 제의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은 都會를 열고 都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폐정을 개혁하는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國難은 가중되었다. 드디어 김학진도 전봉준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及聞京師亂 鶴鎮使軍官宋司馬 持書入南原 喻瑋準等 約以同赴國難 使率道人 共守全州 蓋瑋準外示悔禍 聲言歸化 故鶴鎮召之 觀其去就 瑋準持書 猶豫已而歎曰 要當一死報國 贖吾倡亂之罪 遂整衆作行計 開南不應 率所部 間道逃歸 瑋準入全州(『梧下記聞』 2, 갑오 7월조, 61쪽).

今初六日 全瑋準與其學徒 來會營門 實心悉除後 又定牢約(『隧錄』)

六月 觀察使請邀全瑋準于監營..相議官民相和之策 許置執綱于各郡(『甲午略歷』)

김학진은 송인회를 남원으로 보내 전주에서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7월 2일 남원에 와 있던 전봉준은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전봉준은 휘하 수십명을 거느리고 전주 감영으로 가

7월 6~8일간 김학진과 회담을 가졌다.

전봉준이 김학진의 회담 제의에 응한 것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을 대단한 민족적 위기로 간주한 점, 5월 8일 전주성을 철수한 이래 전봉준도 치안부재와 그에 따른 부랑배의 소요를 통제하려고 한 점, 정부의 개혁사업과 대원군의 정계 복귀에 따른 기대감, 정국 추이 관망과 향후 대응책 모색 등이 작용하였다.

전주회담에서 전봉준과 김학진이 논의한 내용은 시국 전반에 관한 것이었고, 그 대책으로 관민상화와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의논하였는지는 회담 직후 전봉준이 각지의 농민군에게 발한 통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이 거사는 오로지 백성을 위해 폐해를 제거하는데 있다. 그런데 저 교활하고 불량한 무리들이 멋대로 날뛰며 평민을 침학하고 마을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하찮은 혐의나 작은 허물이라도 꼭 보고하라. 이들은 덕을 배반하고 선을 해치는 무리이니, 각 고을의 집강들은 밝게 살펴 금지하라. (『수록』)

이같은 내용의 주요골자는 도내의 치안유지로, 집강의 주요한 역할 역시 치안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었다. 집강소의 기능은 우선 도내의 치안유지였고 폐정개혁 활동은 부차적이었다. 더욱이 전봉준은 위 통문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시행지침을 내렸다.

- 이미 거두어들인 砲·창·검·馬는 이미 公納에 속해졌으니, 각 接主들에게 통문을 돌려 그 수효와 소지자의 성명·거주지를 상세히 적어 2개의 문서를 만들되, 하나는 巡營에 보내고 또 하나는 각 집강소에 두고 뒷날 참고할 것.
- 驛馬와 商馬는 각각 본주인에게 돌려줄 것.
- 지금 이후부터 砲를 거두어들이고 馬를 빼앗는 것은 일체 금지하며, 錢財를 토색하는 자는 이름을 적어 巡營에 보고하여 軍律에 따라 처벌받게 할 것.
-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私債를 받아내는 일은 그 시비를 논하지 말고 일체 금지하며, 이를 어긴 자는 순영에 보고하여 처벌받게 할 것.

이같은 내용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는 위 조항들이 전주회담에서 직접적으로 타협된 산물이라는 점, 둘째는 전봉준이 집강소조직을 통해 농민군 활동을 지도하였다는 점, 셋째는 사실상 전라도내의 치안이 마비된 상태에서 집강소조직을 통해 치안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위와 같은 내용은 농민군의 활동을 적극 통제하고 마비된 행정력과 치안질서를 복구하는 것으로써, 집강소조직과 행정조직이 병존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었다. 김학진도 지방관들로 하여금 농민군의 집강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농민군지도부 역시 행정에 협조하였다.

이처럼 전주회담에서 전봉준과 김학진이 타협한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내의 안정과 치안유지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집강소 운영이었다. 김학진은 농민군조직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이 자치기구화한 뒤 이를 통해 도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본래의 의도가 성공하였고, 전봉준은 농민군 주도로 치안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집강소를 매개로 폐정개혁을 도정에 반영시켜 이를 감독·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5월 8일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뒤 다소 평온하던 전주는 또다시 농민군들이

진입하였다. 전봉준은 회담 결과에 따라 전라도 농민군의 총지휘본부인 大都所(濟衆義所)를 전주감영에 설치하고, 그의 비서인 宋喜玉을 전라좌우도 都執綱에 임명하여 집강소를 이끌도록 하였다. 전주집강은 송덕인이 맡았다. 7월 15일에는 남원에서 수만명이 집결한 농민군대회를 열고 회담 결과를 알리는 동시에 집강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외형상 전라도 농민군은 전봉준의 지휘하에 전주 대도소가 총괄하고 도집강 송희옥이 각지의 집강소를 관리하는 체제로 재편되었다. 집강소는 농민군을 통제하고 도내의 치안 질서를 바로잡는 등 전라도의 치안권이 사실상 농민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⁶²⁾

2. 폐정 개혁

전주회담에서 두 사람이 폐정개혁문제에 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회담 이후 농민군이 그동안 요구한 폐정개혁조항들도 전향적으로 처리되었다. 전라감사 김학진은 자신의 권한에 있는 것은 자체 처리하고 권한 밖의 것은 중앙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7월말 김학진은 전주 士民이 연명으로 낸 청원서의 여러 조목중 國計에 관계된 7개조목을 중앙에 보고하여 8월 1일 처분을 받았다(『關草存案』). 그 7개조목은 ① 구휼금 하사, ② 1893년도 미납세에 대한 每石 25兩 代錢과 520석에 대한 탕감, ③ 각년 미납세와 군포에 대한 代捧, ④ 泲稅와 잡세 혁파, ⑤ 限年陳結 230結에 대한 세금 감면, ⑥ 轉運所의 잡비와 量餘 폐지, ⑦ 均田 賭租의 濫捧과 솜뎀의 폐단 금지였다. 그중 ①·②·④·⑥·⑦은 허락하였고, ③·⑤는 차후에 다시 아뢰도록 하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처리되었다. ③·④·⑤·⑥·⑦은 그동안 농민군이 요구했던 폐정개혁안에 들어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6월 이전에 전봉준 등은 초토사 홍계훈과 순변사 이원희 및 김학진에게 자신들의 폐정개혁안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행되도록 해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했었으나, 그들이 중앙에 구체적으로 보고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7월말 김학진의 장계가 처음이다.

또한 김학진은 군국기무처 의안을 즉시 반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7월 12일 군국기무처 의안 25개중 9개가 한글로 번역되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문벌과 반상의 등급 혁파, 연좌법

62) 전주 대도소에서 무주 집강소 앞으로 보낸 7월 17일자 통문(<수록>) 발송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甲午 七月 十七日 在營下

左		右
	都所 (手決)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左右道 都執綱(도장) </div>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라도내 집강소를 총괄하는 도집강은 좌우도소에 소속되어 있고 좌우도소와 집강소가 동일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시 농민군조직의 전체상을 놓고 볼 때 좌우도소는 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이 이끄는 보다 큰 조직틀로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도소와 집강소가 동일시된 것은 7,8월 좌우도소 운영체제가 집강들을 중심으로 한 집강소체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소와 집강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같은 사실은 순천에 있던 嶺湖大都所의 조직이 嶺湖大接主에 김인배, 嶺湖都執綱에 鄭虞炯이었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혼 자유, 노비제도 혁파 및 인신매매 금지, 朝官·士庶人·兵弁의 衣制 규정, 平輻子와 輻軒 폐지(이상 6월 28일자 議案), 臧吏 처벌규정, 驛人·才人·白丁의 면천(이상 7월 2일자 議案)이었다. 이들 의안은 기존의 사회신분제를 혁파한 것으로, 농민군의 신분해방투쟁 역시 합법성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전봉준도 만족해 하였다. 8월 11일 전주에서 일본인을 만난 전봉준은 “이미 閔家를 일소하고 大院君을 내세워 弊事를 개혁해 政法을 바르게 하였으니, 우리들이 본래 바라던 대부분은 달성되었다”라고 하였다. 전봉준은 대원군의 정계 복귀와 군국기무처의 조치로 종래 제기했던 개혁안을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문제는 각 고을에 설치된 도소 또는 집강소와 폐정개혁 활동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앞에서 집강소체제의 주요기능이 치안유지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집강소 기능이 여기에 한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집강소의 개혁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김학진이 집강 임명을 허용하고 지방관들로 하여금 이를 보장케 한 이면에는 결과적으로 농민군 조직과 활동이 용인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학진으로서는 도내의 안정을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농민군 집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이에 협조한 농민군으로서는 반대급부로서 농민군 조직과 활동을 집강을 매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해당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한 농민군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폐정을 찾아내 개혁할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됨에 따라, 나름대로 집강소 강령을 정해 놓고 폐정개혁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집강소 활동은 사실상 농민층세력이 우세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였다. 집강소 운영은 반농민층세력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설치경위와 시기·방법·기능·운영방식 등이 규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수기득권세력이 우세한 지역의 경우는 설령 집강소가 설치되었을지라도 그 기능이 주로 치안유지에 있었다. 한 예로 강진 병영의 경우는 7월 10일 道人接(都所)이 설치되었어도 그 운영주체가 세력에 밀려 동학에 입도한 아전들이었고, 그 기능 역시 치안유지를 통한 保營에 있었다. 그래서 국면이 역전된 10월 1일에는 도소가 守城所로 재편되어 농민군을 토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집강소는 능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7월 이후 설치된 집강소는 그 운영주체가 어떠한 세력이었느냐에 따라 그 기능상의 차이가 있었다. 농민층의 힘이 우세한 지역의 집강소는 폐정개혁기구로도 기능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치안기능만 담당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설치된 집강소의 공통된 점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자치기구로서 주요기능이 치안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Ⅲ. 집강소체제의 붕괴와 재기병

전봉준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집강소체제를 이끌었다. 첫째는 일본군의 궁궐 점령과 청일 전쟁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따른 전라도내의 치안유지와 안정 필요성, 둘째는 日·淸軍의 동향과 농민군 힘의 한계, 셋째는 군국기무처의 개혁정책과 대원군에 대한 기대 등이었다. 이같은 전봉준의 현실인식은 나름대로의 객관성과 정세 판단에 기초를 둔 것으로, 그 결과 9월 재봉기 이전까지 극렬한 혁명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고 7,8월간 다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8월 중순 이후 일본세력에 맞선 재기병 움직임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미 흩어진 농민군들이 다시 모이고 이미 해산한 자들이 재결집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농민군들이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은 “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政事가 잘 시행되리라는 기대와 더불어 대원군이 복귀하고 민씨일족도 이미 축출되었기 때문”이었으나, 그같은 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깨지고 다시 봉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였다.

첫째는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 이후 혁신적인 개혁이 추진되면서 희석화된 일본의 침략의도가 청일전쟁이 진행되면서 민중들 사이에 재인식된 점이다. 특히 8월 17일 평양 대회전에서 승리한 일본은 내정에 간섭하고 농민군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군국기무처 역시 8월 24일 군대를 동원해 농민군을 토벌하기로 의결하였다.

둘째는 일본의 침략의도가 간파되면서 개화과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개화과정권에서 추진한 탐관오리에 대한 숙청, 신분제 혁파와 같은 개혁 의미를 반감하는 것이었다. 설령 개화과정권에서 추진한 일련의 정책에 찬성할지라도, 당시 민중들은 일본의 후원과 간섭하에 이루어지는 한 용인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셋째는 대원군이 정권에서 점점 소외된 점이다. 8월에 들어와 대원군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심지어 지방에는 대원군이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원군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농민군으로서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넷째는 농민군 내부의 사정이다. 7,8월 농민군은 包接을 단위로 한 조직의 특성상 개별 분산적으로 활동한 지역이 많았고, 구성원도 계급모순에 민감한 소빈농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민족적 위기를 전면에 내세운 전봉준의 집강소 운영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며, 그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전봉준의 지도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보수지배층도 撫局을 깨뜨리지 말라는 김학진의 지시를 무시하고 민보군을 결성하여 농민군에 대항하는 지역이 속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장수·진안·무주·용담·금산·운봉·전라좌수영·홍양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주와 금산은 7월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8월에 이미 민보군이 결성되어 농민군과 대립하였다.

그리하여 8월 하순 이후 본격적인 무력투쟁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개남 주도로 열린 8월 25일경의 남원 농민군대회는 전체적인 동학농민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개남은 소극적이거나 전봉준이 주도하는 집강소체제를 인정하였으나, 남원 농민군대회를 통해 재기병하기로 선언하였다.

8월 25일 남원 농민군대회 소식을 전해들은 전봉준은 남원으로 달려가서 “지금 時勢를 보건대 일본과 청이 전쟁중인데 어느 쪽이 이기든지 반드시 군사를 우리들에게 돌릴 것이다. 우리들은 비록 무리는 많지만 오합지졸이어서 쉽게 무너진다. 이 무리로서는 끝내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귀화에 의탁하여 각 고을에 농민군 역량을 보존하면서 시세의 변이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김개남으로 하여금 전면봉기의 계획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김개남은 “이 큰 무리가 한번 흩어지면 다시 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봉준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두 사람은 청일전쟁에 따른 민족적 위기를 공감하면서도, 전봉준은 농민군 역량의 한계와 시국 변화의 유동성을 이유로 관망하던 입장이었고 김개남은 현실적인 이유로 재기병 계획을 밀고나갔다. 김개남은 농민군 일반의 정서와 열기를 바탕으로 민족적 위기를 정면으로 타개하려는 입장이었다.

남원 농민군대회는 사실상 농민군의 재기병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맞춰 순천

嶺湖大都所도 자제해 오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9월 1일 河東 공격을 시작으로, 晉州 방면으로 무력진출을 꾀하였다. 더욱이 전봉준이 김개남을 찾아가 무력투쟁을 삼가도록 만류하던 8월 25일경 전후, 고부·고창·금구·무장·장성·홍덕·태인·함평·부안·정읍 등지의 농민군은 성내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 이들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전봉준의 지도력이 직접적으로 미쳤던 全羅右道의 중심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무장은 곧 전봉준의 지도노선에 타격을 주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7월 이후 추진되던 관민상화의 원칙과 이에 따른 집강소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것임을 의미한다.

전봉준은 새로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대원군쪽(이준용)이 보낸 밀사들과의 시국 논의이다. 9월 3일 도집강 송희옥은 해산하라는 대원군 효유문을 가지고 온 두 사람(김태정·고영근)을 만난 뒤 무리를 이끌고 전주 龜村으로 일단 거처를 옮겼다. 송희옥은 9월 5일 저녁 대원군 밀사(박동진·정모<정인덕?>)들이 찾아와 대원군쪽의 비밀계획을 전해 듣고 다음날 태인 집에 머물러 있던 전봉준에게 그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봉준은 9월 8일 곧바로 삼례로 달려와, 송희옥으로부터 전말을 듣고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남원에서 이진영이 찾아왔다. 이진영은 대원군이 비밀리에 보낸 소모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밀지를 보여주며 전봉준으로 하여금 재기병하여 북상하도록 설득하였다.⁶³⁾

드디어 전봉준은 재기병하기로 최종 결심하였다. 9월 9일 전주감영에 설치되어 있던 전라좌우도소를 완전히 철폐하고 남아 있던 집강들을 철수시킨 뒤, 다음날 삼례로 대도소를 옮겨 설치하고 재기병 준비에 들어갔다.

전봉준은 삼례 대도소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관아 무기고를 공격해 무장을 강화하였다. 10일에는 여산, 14일에는 전주성, 16일에는 위봉산성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또한 각지에 통문을 보내, 재기병의 대의를 밝히면서 농민군을 징발하고 군량미와 군자금을 모으도록 하였다. 이는 대도소 보위와 출병에 대비한 것이다.

이같은 통문은 최경선과 손화중에게도 보내졌다. 특히 전봉준의 측근인 최경선은 삼례 대도소로 와 5, 6일간 머문 뒤 재기병을 위해 광주지역으로 내려갔다. 9월 26일에는 광주에서 손화중이 이끄는 대규모의 농민군 都會가 열렸다. 또 전봉준은 9월 18일경 호서지방에도 통문을 보내 같이 연합해 서울로 진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전봉준은 삼례 대도소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기반을 다진 뒤, 드디어 10월 12일 서울로 향하였다. 그는 전주 宋一斗·崔大奉 등과 같은 중간급 지도자들과 함께 4천여 명의 농민군부대를 이끌고 삼례를 떠나 본격적인 대일항전에 들어갔다.

63) 9월초 전주를 다녀간 인물은 김태정과 고영근·정석모, 박동진·정모·이진영 등이다. 전자는 개화파정권쪽에서 보냈고, 후자는 대원군쪽에서 보낸 인물들로 여겨진다. 이들은 전주·남원 등지를 오가며 농민군 지도부를 접촉하였다. 또한 이들은 각각 농민군들로 하여금 해산하라는 대원군 효유문(8월 24~25일경 작성)과, 의병을 일으키라는 대원군 밀지(8월 14일경 작성)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9월 초순의 전주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갔고 여러 상황이 중첩돼 나타나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의 사실은 <전봉준공초>, <수록>,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감오약력> 등에서 재구성.